

紅樓夢 人物의 命名예술과 意味분석*

崔 溶 澈**

<목 차>

- | | |
|----------------|----------------|
| 1. 紅樓夢의 명명 방식 | 5. 雅號와 別名의 부여 |
| 2. 諧音法에 의한 명명 | 6. 避諱와 改名의 과정 |
| 3. 配列法에 의한 명명 | 7. 便宜에 따른 이름짓기 |
| 4. 賈黛釵의 명명과 관계 | 8. 紅樓夢 명명의 의의 |

1. 紅樓夢의 명명 방식

《홍루몽》의 독특한 예술특성 가운데 능란한 언어예술의 기교 활용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이며, 언어의 미술사로서의 曹雪芹의 聲價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책이 독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애호를 받으며 심지어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曹雪芹만의 독특한 언변과 기교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오랜 기간 독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आरो새겨 있는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그들 사이에 얽혀있는 깊고도 오묘한 숨은 뜻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읽으면 읽을수록,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무한한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작품 속의 심오한 사상과 절실한 느낌은 作者가 만들어낸 人名과 地名¹⁾ 그리고 사물의 이름에 이르

* 본 논문은 2002년도 고려대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高麗大 中文科 教授

1) 《紅樓夢》의 作者는 특히 人名의 창조에 주력하였다. 地名의 경우는 일부 南方 지역의 실제적인 이름을 제외하면 허구적 지명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기까지 술하게 등장하는 모든 삼라만상에 나름대로 무릎을 치면서 감복하게 만드는 象徵과 比喻, 對比와 隱喻의 예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이나 字號를 짓는 행위는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짓든, 자신이나 주위 사람이 지어주든 모두 개인의 취향에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이름이 지어지고 나면 그것은 남에 의해 불리게 되며, 그것은 곧 그 이름이 사회적으로 활용됨을 뜻한다. 이로써 처음의 개인적인 취향은 곧바로 사회적 행위로 변하게 되며, 더 이상 개인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작자 曹雪芹의 다양한 命名방식을 추출하고, 다채로운 명명의 유형을 살펴보고, 작품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관건이 되는 主要人物의 이름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작품의 主題 및 內容과 결부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논문의 편폭상 登場人物의 명명에만 국한하며, 이와 별도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건물이나 기물, 복식과 음식 혹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 작자의 세심한 배려가 어떻게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계속하여 추적할 생각이다. 《홍루몽》의 예술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명명의 비밀을 캐는 것도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홍루몽》 작품 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명명 방식이 사용되었는지 그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통계에 따르면 《紅樓夢》에서 묘사된 등장인물은 무려 7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姓名이 있는 사람은 약 3백여 명에 달한다.²⁾ 이처럼 많은 인물에게 개별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인다는 사실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曹雪芹은 전통적인 명명 관습을 이어받으면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여 이들 인물에게 각기 이름을 주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2) 《홍루몽》의 등장인물에 대한 역대의 통계는 매우 다양하다. 청대 諸聯은 421명이라 했고 姜祺(季南)은 448명이라 했으며(이 설은 후에 많이 인용됨). 또 姚燮의 <讀紅樓夢綱領> (즉 <紅樓夢類索>)에선 532명으로 셈하고 있어 각기 기준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도 통계 기준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潘銘榮의 《紅樓夢人物索引》(1983)에선 493명이라 하고, 邢頌恩·何錦階의 《百二十回紅樓夢人名索引》(1984)에선 720명을 작중인물이라고 규정하였다. 施寶義 등이 엮은 《紅樓夢人物辭典》(1989)에서는 역사, 신화인물을 제외한 作中人物은 781명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 등장인물을 700여명이라고 한 것은 이를 근거한 것이다. 拙稿《清代紅學研究》(臺灣大學 박사논문, 1990) 274-277쪽 참조.

고금을 막론하고 小說作家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작품세계의 주인공을 구상하면서 그의 모습과 행동과 성격을 그리고 우선 그에게 하나의 이름을 부여한다. 그에게 이름이 생긴 이후에 그는 비로소 작가의 피와 땀이 배인 소중한 被造物로 탄생되는 것이다. 어떤 작가도 자신이 만들어낸 소중한 인물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역사소설가의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은 역사상의 인물명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야사 속의 인물들에게는 결국 자신의 뜻에 의해 하나의 이름을 선사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의 경우에는 그저 張三이니 李四니 하는 이름도 서슴지 않고 쓴다. 독자로서는 그저 그러한 어떤 사람이 있었거니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다. 市井의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로 만들어 널리 유포시켰던 화본소설의 경우도 굳이 이미 알려진 당대의 유명인사가 아니라면 작가의 손끝에서 작명이 이뤄진다.

홍루몽의 人物命名 원칙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물론 대부분은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유구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명명법은 諧音法이다. 이는 한자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면서 다른 글자를 대입시켜 보면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말한다. 중국의 명명역사상 명청대에 극히 많이 사용되었다. 《홍루몽》과 비슷한 시기의 《유림외사》가 그 대표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후에는 청말의 《열해화》 등에도 해음법을 통한 인물의 影射풍조가 유행하였다. 當代의 어떤 유명인사를 지칭하기 위하여 같은 발음의 다른 글자로 작중 인물을 만드는 것이다.

《홍루몽》에서는 작자가 책의 첫머리에서부터 甄士隱과 賈雨村을 등장시키면서 이들의 이름이 곧 眞事隱去, 假語村言의 의미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작중 주인공인 賈寶玉과 그에 상대가 되는 甄寶玉의 경우도 당연히 眞假의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해지며, 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假作眞時眞亦假'라는 對聯을 두 번씩이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³⁾. 이밖에도 薛氏의 상징으로 같은 발음을 가진 눈 雫자를 썼다는 점도 작자가 독자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자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脂硯齋 등의 초기 비평가도 여러 군데서 諧音의 독법

3) 제1회에서 甄士隱이 보였고, 제5회에서 賈寶玉이 太虛幻境에서 봄.

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현대에 와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 蔡元培가 주장한 索隱의 방법이 바로 이러한 諧音의 인명풀이를 통해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후에 民國시기 王夢阮·沈瓶庵, 壽鵬飛 등에서 확대되고 현대에 와서도 潘重規 등의 新索隱派 연구자가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방법이 크게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인물의 경우에는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청대 후기의 일부 紅學家들에게서는 거의 모든 인물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서 건강부회에 불과한 해석도 많이 눈에 보인다. 예를 들면 話石主人은 해음법을 써서 이렇게 강변한다.

金陵十二釵 인물의 명명은 각기 암시하는 의미가 있다. 林黛玉이라고 한 것은 寧待玉이로 읽어야 하고, 雪雁이라고 한 것은 接案이라고 읽어야 하니 합쳐서 읽으면 '조용히 보옥을 기다려 사안을 접수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薛寶釵라고 한 것은 拆寶開라고 읽어야 하고 金鶯은 줄여서 鶯으로 읽고 이를 다시 姻으로 읽을 수 있으니 곧 '보옥을 깨뜨려 금옥의 인연을 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十二釵命名, 各有喻意. 曰林黛玉, 讀寧待玉; 曰雪雁, 讀接案; 寧待寶玉接案也. 曰薛寶釵, 拆寶開, 曰金鶯, 減名鶯, 鶯讀姻; 拆寶玉開聯金玉姻也.)⁴⁾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순전히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홍루몽》 인물명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配列法이다.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중인물을 배열시키는 것이다. 개개인의 경우는 그 이름과 운명이 반드시 맞아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방법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를 賈氏 네 자매의 이름과 그들의 侍女에게서 찾아보았다. 시녀들의 이름에서는 배열법으로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신 주인아가씨의 취미와도 일치하도록 하는 정교한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賈府의 주요 인물들에게 소속된 수많은 시녀들도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그룹으로 배열이 되어 있음도 확인할

4) 話石主人 《紅樓夢本意約編》(光緒四年刊本), 《紅樓夢卷》180쪽에서 재인용.

수 있다. 가문의 세대별 안배도 배열식에 의한 것이다. 각 세대별 들림자를 쓰는 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방법이다. 어떤 글자를 쓸 것인가는 바로 작자의 관점이 들어가는 대목이다. 독자들이 단 한번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심오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성공적인 명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개인적인 이름으로서가 아닌 국가적 대업의 의미를 담아야 하는 東西南北의 郡王이름과 公侯世家의 명명에서도 작가는 고심 끝에 이름을 만들어냈다. 어떠한 기준과 배열에 의해 명명이 진행되었는지도 살필 수 있다.

이밖에도 개인별 雅號의 명명과정이나 避諱와 改名의 이유 등을 묘사한 상당부분의 내용이 들어있어 등장인물의 명명을 둘러싼 다양한 방식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2. 諧音法에 의한 명명

《홍루몽》의 경우 작자는 처음부터 독자들의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법으로 등장인물을 명명하면서 諧音法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한다. 다음에 비교적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는 예를 찾아보도록 하자.

(1) 甄士隱과 賈雨村

이 작품의 첫 회와 마지막 회에만 나오면서 일찌감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甄士隱⁵⁾,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하여 출세 길을 내달으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부귀공명을 향한 눈물겨운 노력 끝에

5) 甄士隱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그 음에 따라 마땅히 '견사은'으로 되어야 하지만 《홍루몽》의 경우에는 甄과 賈의 성씨가 眞과 假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진사은'으로 읽히고 있으며 이점은 국내 모든 번역본에서 공통된다. 한편 國內에서도 후백제의 甄萱에 대해 마땅히 진원으로 읽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어 주목된다.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서는 賈雨村을 소개하면서 작자는 얼토당토않게 ‘진짜 일은 숨기고(眞事隱去)’, ‘거짓 이야기와 촌스런 말로(假語村言) 부연한다’ 는 의미에서 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노라고 공식 성명을 내고 있어 독자들의 비상한 주목을 끌게 된다. 곧바로 다음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작자에 의해, 그리고 이 책의 초기 비평가의 손에 의해 계속 확대 해석된다. 사은이나 우촌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들의 별호에 불과한 이름이며 그 본명은 甄費와 賈化다. 진비는 ‘정말로 폐기된 사람(眞廢)’으로 해석되고, 가화는 ‘거짓말로 남은 사람(假話)’이 된다. 가우촌의 字인 時飛는 또 ‘사실은 전혀 아니올시다(實非)’라고도 해석된다.

진사은과 가우촌의 이름은 그들 자신들만의 것만이 아니라 《홍루몽》의 전반적인 구성과 주제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단 眞과 假의 두 가지 요소를 대변한다. 太虛幻境의 입국에 현판 양쪽으로 걸려있는 대련의 첫 구절이 바로 그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짜가 진짜 되면 진짜 또한 가짜요 假作眞時眞亦假.
무가 유가 되면 유 또한 무가 된다 無爲有處有還無.

이 구절은 진사은에 의해 처음 보여지지만, 후에 가보옥의 꿈속 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만큼 작자의 마음속에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 없으며 독자들을 향해서 거듭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한 것이었다.

소설의 중심무대는 賈氏 가문의 賈府이고,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안의 賈寶玉이다. 하지만 이 집안과 너무나 유사하며 또한 어려서 거의 똑같은 인물로서 江寧(즉 남경)의 甄家에 사는 甄寶玉이란 인물이 따로 있다. 독자들은 이 소설 속의 묘사를 통해서 그 중의 한쪽은 물 속의 달이나 거울 속의 꽃과 같은 허망한 모습이란 것을 느끼게 된다.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각을 느끼도록 하는 쪽은 물론 가부의 賈寶玉이며, 거울 속의 꽃이나 물 속의 달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은 진부의 甄寶玉이다. 하지만 진과 가로 구분된 이 양자의 모습은 도치가 된 상태로 우리 앞에 현신한다. 태허환경의 대련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

에 보이는 이 현상을 그대로 믿지 말도록 권고한다.

세상에서 진실이라고 믿는 곳에서 사람들이 거짓의 흔적을 발견하듯이 바로 그 거짓이라고 하는 곳에 진실이 숨겨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진보옥과 가보옥이란 인물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작품의 冒頭에서 진사은과 가우촌을 통해 상징화되는 것이다.

(2) 四大家門인 賈史王薛

《홍루몽》의 주요무대는 賈氏 집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당시의 인척 가문으로는 史氏와 王氏, 薛氏 등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간에 끈끈한 인척관계로 맺어져 있어 부귀영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바깥세계에서는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들의 상호 관계를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제4회에서 賈雨村이 보게되는 護官符이다. 호관부란 벼슬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부적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니 당시 지방장관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지방의 호족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賈雨村은 원래 공명심이 뛰어난 자로 林黛玉의 훈장선생으로 있다가 林如海의 추천을 받아 賈政에 의해 발탁되고 마침내 金陵에 부임하게 되는데 그에게 처음 주어진 과제는 바로 薛蟠 일당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자신의 부귀와 세력만 믿고서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유유자적하며 서울로 떠난 설반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아전(門子)⁶⁾ 하나가 눈짓을 하며 말린다. 그는 바로 일찍이 葫蘆廟에 있던 사미승이었다. 가우촌은 밀실에서 그가 내미는 호관부를 보고 호족사이의 단단한 인척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고 더욱이 자신이 출세의 줄로 이용하였던 賈氏 집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속수무책인 상태로 아전의 계략에 따라 사건을 흐지부지 종결하고 만다. 그 護官符에서 밝히고

6) 원문인 門子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대체로 관청의 문지기, 공문수발, 속직담당 혹은 차시중 등의 일을 맡은 하급 아전을 이른다. 清 趙翼의 《陔餘叢考》卷36 '門子'條에는 "今世所謂門子, 乃牙署中侍茶, 捧衣之賦役也."의 구절이 있다. 소설 원문에 가우촌이 發籤(영장 발급)하려는 순간 곁에 시립해 있다가 눈짓을 보낸 이 문자는 곧 아전을 이른다.

있는 사대 가문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씨(賈氏)는 거짓 아니고 백옥으로 집 짓고 금으로 말 만든다네
 (賈不假, 白玉爲堂金作馬.)
 아방궁이 삼백리라도 금릉 사씨(史氏) 하나 못 다 들어간다네
 (阿房宮, 三百里, 住不下金陵一個史.)
 동해 용궁에 백옥상 없으면 금릉 왕씨(王氏)한테 청하러 온다네
 (東海缺少白玉床, 龍王來請金陵王.)
 풍년에는 큰 눈(雪, 薛氏)이 오나니 진주와 금을 흙과 쇠처럼 쓴다네
 (豐年好大雪, 珍珠如土金如鐵.)

호관부에서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성씨의 해음법은 우선 가씨와 설씨다. 각각 賈와 假, 薛과 雪을 대비하고 있다. 가씨의 경우는 이미 앞서 가우촌에서도 보인 바이지만, 설씨는 여기서 비로소 분명히 밝혀준다. 사씨와 왕씨의 경우는 다른 글자로 대체되는 해음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자체로서 역사상 유명한 진시황의 아방궁과 史氏를 연결시키고, 용궁의 용왕이 사용하는 백옥상에 王氏를 연결하는 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연상을 유도하기 위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이 네 가문의 성씨가 과연 호관부에서 보여준 그대로의 의미로 남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우선 가씨의 경우는 작품 전체를 흐르고 있는 眞假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씨에 해당되고 또한 이 책의 중심이기도 하다. 진보옥과 가보옥의 경우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연 어느 편이 진정한 모습인지는 독자들의 깊은 생각을 요하게 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분명 가보옥이지만 그의 이름에는 가씨라는 성씨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가보옥과 진보옥의 어릴 적 습관이나 생각은 매우 유사하여 거의 동일 인물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전80회 이전에서 진보옥은 정식으로 등장하지 않고 賈雨村과 진부에서 온 여인사이에서 언급되고, 또 가보옥의 꿈에 등장할 뿐이다⁷⁾. 어찌보면 賈府와 가보옥은 표면상으로 실제 묘사가 되는 實寫의 부분에 속하고 甄府와 진보옥은 허

7) 진보옥은 제2회 가우촌의 말속에서 “江南甄府裡的哥兒”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오며, 제18회 脂硯齋評語중에 “《邯鄲夢》中伏甄寶玉送玉”이란 구절이 있지만, 후반부에 그러한 대목은 나오지 않으므로 다만 초기 원본에 들어있었던 내용으로 보인다.

구적으로 존재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虛寫의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의 姓氏는 그 반대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진사은과 가우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깊숙이 숨겨지고 쓸데없이 겉도는 헛말을 겉으로 드러내 놓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후반부에 이르러 진보옥과 가보옥은 만나지만(115회) 이름과 모습이 같으나 마음만은 서로 다른(同名同貌不同心) 상황을 그려내고 있으며, 진보옥의 결혼, 진보옥의 과거급제(가보옥, 가란등과 同年)를 묘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사랑의 허무와 인생의 비애를 깨닫고 출가하는 자는 가보옥이며, 부귀공명을 향하여 힘쓰는 지극히 속되고 평범한 인물로 변한 자는 역으로 진보옥이었다.

사대 가문 중에서 설씨는 원래 豐年大雪이란 의미에서 재산이 풍족함을 말하고 있었다. 호관부에서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러하다. 하지만, 실제로 설씨의 대표인물인 薛寶釵에게서 풍기는 의미는 그게 아니다. 그녀의 성씨로서의 薛氏는 차디찬 눈(雪)이란 의미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녀의 운명을 상징하는 太虛幻境의 金陵十二釵 正冊에서는(제5회) 하얀 눈에 꽃혀 있는 비녀의 그림이 있고 시 구절에서도 '금비녀가 눈 속에 묻혔네(金簪雪裏埋)'라고 읊고 있어 홀로 남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차가운 눈에 비유하고 있다. 설보차의 성격도 과묵하고 냉정함을 잃지 않아 冷美人으로 알려져 있고 그녀가 복용하는 알약의 이름도 冷香丸이라고 부른다. 그녀의 어머니인 설이모도 그녀가 꽃이나 지분 등을 일체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고, 그녀의 거처를 둘러본 賈母는 여자의 방안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깔끔하고 쓸렁한 분위기에 눈 구덩이 같은 곳(雪洞一般)이라고 하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조짐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홍루몽》에서 설씨를 안배한 작자의 의도는 바로 여주인공 설보차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賈史王薛의 사대 가문의 성씨에 대해 假史(거짓 역사)나 假事(가짜 일) 혹은 假使妄說(거짓으로 허망하게 한 말)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작자가 그렇게 단순한 해음법의 적용으로만 성씨를 안배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미가 보다 심오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인물의 해음법

《홍루몽》에는 앞서 말한 중심 가문이나 주요 인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소인물의 경우에도 족석에서 만들어낸 간단한 해음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로는 脂硯齋 등의 비평가들이 올바르게 지적해 놓았기도 하였지만 역대 紅學家들이 지적한 해음법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충분히 그럴싸하게 보이는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제1회에서 가우촌은 진사은의 집 서재 창문 밖에서 꽃을 따는 하녀와 눈이 마주 친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가우촌이 마침내 과거에 급제 하여 사또가 되어 부임할 때 진사은은 딸을 잃어버리고 집은 불타고 처가에 의존하였다가 세상의 허무함을 간파하여 도사를 따라 출가한 뒤였다. 하지만 가우촌은 길가에서 실을 사고 있던 이 여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그리고 일년 뒤 아들을 낳고 본처가 죽자 정실이 된다. 그 여자의 이름은 嬌杏이었다. 그 이름은 바로 너무나 행운을 타고났다는 의미에서 요행(jiaoxing, 僥幸)이란 말과 같은 발음을 가진 해음법의 명명이었다.

甄士隱의 딸 英蓮을 데리고 정월 보름날밤에 등불 구경을 나갔다가 잠시 소피를 보는 사이 영련을 잃어버린 인물은 霍啓라고 하는데 화근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는 뜻을 가진 禍起(huoqi)와 같은 발음이어서 역시 해음법의 하나로 만든 인물임이 분명하다.

제2회에서 賈雨村을 만나 영국부의 가문유래를 해설하고 가보옥을 소개하는 冷子興이란 인물은 객관적인 제삼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볼 수 있다. 脂硯齋도 평어에서 이 인물이 줄을 당겨주는 '引繩'이 되어 '冷中出熱, 無中生有'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4회에서 賈芸이 대관원 공사의 일을 도급 맡기 위해 왕희봉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돈을 구하러 향료 가게를 운영하는 그의 외삼촌 卜世仁을 찾아간다. 하지만 뜻밖에 냉대를 받고 나온다. 脂評은 이 대목에서 그 이름을 아예 '사람도 아닌 자(不是人)'라고 풀이하면서 '이미 사람도 아닌 자라고 못박고 있으니 어찌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으랴. 생각건대 쫓도령은 이번에 헛수고를 할 뿐이로다⁸⁾라고 평을 달고 있다. 허탈한 심정으로 나오던 가운은 오히려 醉金剛(倪⁹⁾)를 만나 돈을 구하게 된다.

아주 사소한 인물에도 해음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詹光(沾光), 單聘人(善騙人), 王仁(忘仁), 卜固修(不顧羞) 등이 그러하다. 이들은 이름 속에서 그들의 성격 혹은 행동의 도덕적 기준까지 드러내고 있는 경우다. 말은 바 소임을 드러내는 인물들의 명명으로는 賈府의 식량을 담당한 戴良은 그 의미가 양식을 가지고 다닌다는 帶糧이나 이름을 뒤집으면 식량 주머니라는 糧袋라는 뜻이 되고, 창고지기인 吳新登은 눈금 없는 저울이라는 뜻으로 無星戥(deng)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니 창고 속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고, 생활용품을 밖에서 사들이는 일을 담당하는 錢華라는 자는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뜻의 花錢의 의미를 담고 있다. 13회에 등장하는 궁중 太監(내시) 戴權은 황제의 권력을 대행한다는 代權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홍루몽》의 해음법 명명에서 때로는 남방방언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秦可卿을 情可情(혹은 情可輕)으로 읽는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秦(qin)과 情(qing)은 북경 표준어에서 종성이 다르게 발음되지만 남경을 중심으로 하는 방언지역에서는 거의 구분이 안되고 있으므로 秦鐘이 情種이 되고, 秦業은 情孽¹⁰⁾의 의미로 되는 것이다. 秦氏 남매의 이야기는 《홍루몽》의 전반에서 불과 짧은 편폭에서 마무리되고 말지만 주인공 가보옥을 정의 세계로 인도하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秦可卿은 열세 살 된 가보옥이 남녀관계에 눈을 뜨게 한 인물이며 또한 이 집안의 기풍을 흔들어놓은 장본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제5회에서 보옥은 그녀의 침실에서 낮잠을 자며 太虛幻境을 몽유하게 되는데 警幻仙姑의 누이라고 하는 可卿(자는 兼美)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가 迷津에 빠지고 만다. 秦鐘은 그녀의

8) “既云不是人，如何肯共事，想芸哥此來空了”，陳慶浩《新龍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增訂本) 395쪽.

9) 倪二의 명명은 분명히 《水滸傳》에 술주정뱅이로 楊志에게 달려들다 죽임을 당하는 牛二를 모델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의협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별명인 醉金剛도 그렇게 붙여진 것이다. 다만 후반부인 104회에서 賈雨村의 행차에 달려들었다가 무욕되자 賈芸에게 구명운동을 하지만 도와주지 않자 원망하는 대목에는 협객답지 않은 면이 있기도 하다.

10) 《甲戌本》제8회의 脂硯齋評語에서 “名業者，孽也，蓋云情因孽而生也。”陳慶浩《新編》168쪽.

남동생으로 제7회에서 보옥과 처음 만난 이후 서로를 흠모하여 함께 家塾에 다니게 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우정보다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진중은 결국 비구니 智能과의 음란에 빠졌다가 후에 병으로 급사한다. 《홍루몽》에서 이들 진씨 남매의 이름은 그야말로 가보옥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또 남녀 사이의 동성 사이의 다양한 사랑의 세계를 맛보게 하기 위해 존재하였던 인물이었음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甄英蓮의 이름은 우선 진사은의 딸이란 점에서 甄氏는 眞과 통한다. 그래서 진영련은 정말로 가련한 인물(眞應憐)이란 의미로 풀고 그녀의 고쳐진 이름 香菱은 서로 가련히 본다(相憐)는 의미로 풀기도 하였다.¹¹⁾

이와 유사한 경우는 《홍루몽》에서 상당히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50여명의 인물 명명이 바로 이 해음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¹²⁾ 하지만 과연 조설근이 어디까지 자신의 구상 속에서 이 방식을 이용하여 명명을 하였으며, 어디까지는 그러한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혹은 다른 방식으로 명명했는지 명확하게 금을 그어 단언하기는 힘들다. 다만 앞에서 일부 지적한 대로 우선 작품의 본문 속에서 명쾌하게 지적한 부분을 비롯하여 작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초기 비평가들이 지평본에 남겨놓은 부분적인 지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일단은 안전한 방법이라고 본다. 게다가 굳이 덧붙이자면 작자나 초기 비평가들이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만 오늘의 입장에서라도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만을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³⁾

11) 脂評“蓋英蓮者應憐也，香菱者亦相憐之意” 陳慶浩《新輯》134쪽.

12) 周尚義〈紅樓夢人物命名的審美意蘊〉참조, 《紅樓》總67期(2003年第2期), 2003. 6.

13) 해음법에 의한 인물의 상징성을 연구하기 좋아하는 索隱派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을 이러한 방식으로 풀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蔡元培의 《石頭記索隱》에서는 紅자를 朱자로 보고 이 책이 康熙朝의 정치소설이라고 하면서 명나라의 멸망을 弔喪하고 청나라의 실정을 비판하려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또 王夢阮·沈瓶庵《紅樓夢索隱》에선 淸世祖 順治帝와 董鄂妃(즉 名妓 董小宛)의 애정고사로 보면서 寶玉은 순치제 福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潘重規는 《紅樓夢新解》 등에서 蔡元培의 주장을 대폭 보강하여 胡適과의 새로운 논쟁을 제기한 바 있으며, 反淸復明운동과 관련된 《홍루몽》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인물의 해음법으로 보면 보옥을 玉璽로 보아, 가보옥을 청나라, 진보옥을 명나라의 옥새로 보며,

분명한 것은 작자가 이러한 해음법에 따른 명명의 방식을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며, 그것은 이미 그보다 앞선 작품에서도 일부 보이고 또 후세에도 많이 사용되는 중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명명기법이라는 사실이다.

3. 排列法에 의한 명명

命名的 방식으로 꼭 배열법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배열기준에 따라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붙인 용어다. 그 내용은 마치 우리가 항렬자를 따라서 쓰듯이 같은 항렬의 인물이거나 같은 계층 또는 같은 유형의 인물들에게 전체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각각의 인물에게 이름을 붙임으로서 하나하나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다가 전체를 아울러 관찰하게 되면 마침내 확연히 그 의미가 두드러지게 명명한 경우를 이른다.

가장 현저한 예는 우선 賈氏집 네 아가씨의 이름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글자 자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元春과 迎春, 探春, 惜春은 그대로 봄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결말을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홍루몽》의 심오한 含意는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춘에 대한 애달픈 송가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春字를 돌림을 하고 있는 이 네 小姐의 이름에서 바로 청춘이 흐르고 '봄날은 간다'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 賈氏집 네 자매, 元迎探惜

賈氏 집안의 딸들 이름에 대해서는 작품 속에서 이미 여러 방면으로 언급하고

습인을 龍衣人으로 보아 옥새를 가진 자로, 장옥함을 옥새를 넣는 함으로 본다. 작자가 과연 그러한 생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명명법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주장인 것이다.

있다. 제2회 冷子興의 소개에서 처음 이 집안 사람의 각 항렬별 이름의 돌림자를 밝히고 있는데 賈政의 항렬에서는 딸의 경우도 남자와 같이 등글월문(父)문자를 써서 賈敏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하면서 딸의 경우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돌림자를 쓰는 것이 상류층 집안의 명명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우촌의 소개에 의하면 甄씨집에서도 딸들의 이름을 다른 집과는 달리 남자이름처럼 지어서 쓴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세대인 보옥의 항렬에서 아들은 구슬 玉자 돌림으로 가고 있지만 딸은 봄 春자를 돌림자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당시로서는 천한 풍속으로 여겨졌었다. 가우촌도 지체 높은 집안에서는 春이니 紅이니 香이니 玉이니 하는 글자는 쓰지 않는데 왜 가씨집 같은 귀족집안이 춘자를 딸의 이름에 돌림자로 썼는가 하고 묻고 있다.

그 대답은 첫째 딸인 元春의 생일이 정월 초하루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그에 이어서 迎春, 探春, 惜春의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다.¹⁴⁾ 물론 이는 소설 속에서 작자가 보여주는 억지다. 정월 초하루에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 공교로운 일이므로 元春이란 이름을 지을 만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정월 초하루에 태어나서 생긴 특별한 사연은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명명 유래로서만 활용되기 위한 안배다. 그보다도 작자는 지금 봄 春자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바로 이들 자매를 통하여 그 봄의 흐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자의 의도는 분명 부귀영화와 청춘의 몰락과정을 ‘봄날은 간다’¹⁵⁾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전통적인 중국문화에서 봄은 바로 인생의 청춘을 의미하였으며 청춘의 소설은 찬란한 여름날의 성숙된 성년으로서의 발전이 아니라 곧바로 희망의 소설이자 순수한 사랑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홍루몽》의 주인공인 가보옥의 일대기는 수십 년의 한평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살에서 19살에 이르는 불과 6, 7년 동안 성장기의 청춘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 이른바 틈에이저로서 가보옥은 청춘의 모든 것을 상징하며

14) 冷子興은 榮國府의 집사 周瑞의 사위다. 따라서 그 집안의 내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15) 근년에 흘러간 옛 노래 <봄날은 간다>가 다시 리바이벌 되어 유행하고 있는 점이 상기된다. 필자는 《홍루몽》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봄날은 간다’라고 주장한다.

순수한 젊음과 사랑을 대변한다. 따라서 봄이 가는 것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짐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홍루몽》을 소년기의 성장소설로 볼 수도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작자는 작중인물을 통해서 굳이 이 네 자매의 이름이 왜 이처럼 당대의 귀족가문에서는 벌써 금기시하는 속된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元春의 생일이 정월 초하루라는 데 있었던 것이다. 元春이란 봄의 시작이다. 迎春과 探春과 惜春은 바로 그 봄의 변화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한편 이들 네 명의 이름에 대한 諧音法에 따른 해석이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脂硯齋 評語에서 그 방식의 해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脂硯齋는 賈氏 집안 四小姐의 이름 첫 글자가 '원래부터 탄식할 만한 이야기(原應嘆息)'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元春은 궁중의 귀비가 되어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수를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뜨고, 迎春은 배은망덕한 남편을 만나 학대를 받으며 고통 속에 일찍 죽고 말았으며, 探春은 뛰어난 재주와 식견으로 집안을 꾸려나갈 포부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동남 해안으로 시집을 가 버렸고, 막내 惜春은 앞의 세 언니의 불행한 결말을 목도하고는 스스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고 마는 즐거리이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다. 과연 작자의 의도가 그러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金陵十二釵 正冊중에 나타난 그림이나 일부 구절은 여전히 해음법을 사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원춘의 判詞에서 활(弓)을 그려 놓은 것은 宮中이란 글자를 나타낸 것이며, 거기에 걸어놓은 香縑(즉 시트론)은 발음상 원춘의 元자를 나타낸다고 하는 점이다.

하지만, 만약 가씨 집안 네 자매의 이름이 전체적으로 가는 봄날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 위한 일련의 그룹에 의한 명명법이라고 한다면 脂硯齋式의 해음법은 역시 하나의 건강부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작자로부터의 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 자매의 불행한 일생을 뭉뚱그려서 原應歎息이라고 했다는 것은 봄의 흐름으로서의 원춘과 영춘, 탐춘, 석춘이라는 명명에 비해 훨씬 공허한 느낌을 준다. 《홍루몽》에 등장하는 주요 여성인물은 대개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여 안

타가움을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다. 太虛幻境에서 가보옥에게 들려 준 <홍루몽의 서곡>(紅樓夢引子)의 마지막 구절에서 바로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천지가 벽이 되고 세상에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부터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업보에 괴로워하며 세상의 모든 불행한 여성을 위해 이 곡을 짓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제 금과 옥을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因此上, 演出這懷金悼玉的
'홍루몽' 열두 곡을 연출하노라 紅樓夢.

여기서 금과 옥은 작품 속의 구체적인 인물로는 薛寶釵와 林黛玉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불행한 여성 전체의 운명에 대해 가슴아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太虛幻境에서는 바로 薄命司에 소속된 모든 인물이라고 하겠다. 살아있는 자에 대한 懷念과 죽은 자에 대한 哀悼의 뜻을 담고 있다.¹⁶⁾

사실 개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네 자매의 이름에 진정으로 개인적인 일생의 운명을 가늠할 만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 元春이란 이름은 소설에서 밝힌 바대로 정월 초하루에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그녀의 이름 속 어디에도 덧없는 부귀영화가 한낱 꿈과 같다는 그의 운명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정월 초하루에 태어난 인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秦始皇이다. 그의 이름은 그래서 正과 동일한 의미인 政으로 지어졌다.¹⁷⁾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원춘의 경우에도 부친의 이름이 바로 賈政이며, 더할 수 없이 높은 곳에 이른 부귀영화가 너무나 짧게 끝나고 만나는 점을 내세워 진시황과의 유사성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역시 또 하나의 건강부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녀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그녀에게서 시작된 봄은 다음의 세 누이를 통해 봄이 끝나고 만다는 진리를 함께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迎春은 천성적으로 나약하게 태어났다. 부친은 영국부의 주인인 賈赦이지만 지금의 정실인 邢夫人이 아닌 庶出이다. 소설 속에서는 그녀의 모친이 누구인지도

16) 《홍루몽》지평본에서는 '懷金悼玉'이라고 된 이 구절이 《程乙本》에 이르면 '悲金悼玉'이라고 고쳐져 통행되었는데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17) 《古今人生日考》, 朱彭壽,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밝히지 않고 있다. 부드럽고 친근미가 있는(대옥의 눈에 비친 모습, 제2회) 인물이지만 金陵十二釵 正冊의 그림에서 달려드는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무서운 운명을 맞는다. 어떠한 억울한 일이나 불만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항도 없는 그녀에 대해 王熙鳳의 하인인 興兒는 인물평에서 '二木頭(나무토막 같은 둘째 아가씨)'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마침내 中山의 이리 같은 孫紹祖¹⁸⁾에게 잘못 시집간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운명은 이름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探春도 庶出이다. 賈政의 딸이지만 모친은 영국부에서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있는 趙姨娘이다. 하지만 그녀의 강인하고 높은 의지는 자매들 중에서 단연 돋보인다. 모친의 그늘에서도 완전히 탈피하여 소박하면서도 속되지 않은 성품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의 생일이 삼월삼짇날(3월3일)인 것은 가장 왕성한 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상징한다. 그녀는 대관원의 운영을 휘어잡기도 하고 대관원 수색에 나서서 기고만장하여 함부로 날뛰는 邢夫人의 집사댁인 王善保댁의 따귀를 울려붙이는 과단성도 가지고 있다.(제74회) 그녀의 아쉬움은 능력 있는 재주를 미처 다 펼쳐보기도 전에 이 가문의 황혼이 닳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변방의 해안가로 시집을 가게 된다. 그녀의 불행은 그나마 다른 자매들에 비하면 단순히 친정집을 자주 올 수 없는 먼거리로 떠나간다는 점일 뿐이다. 惜春은 네 자매의 막내이지만 영똥하게도 賈敬의 딸이며 賈珍의 친동생이라고 하였는데 좀 믿기지 않는 대목이다. 우선 모친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부친인 가경도 벌써부터 도교에 빠져 성밖에서 나가 생활하고 있다. 그가 의탁하는 곳은 자기네 寧國府도 아닌 작은댁인 榮國府다. 그녀의 가족 관계를 이처럼 다시 큰 집 본가의 嫡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봄날의 消失'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의 안배에 따른 것인지도 모르겠다. 네 자매를 모두 작은 집인 영국부로 하기에는 뭔가 치우친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큰댁인 녁국부에 딸 하나도 안 배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석춘은 그쪽 집에 발을 들여놓으려고도 않는다. 이 집안의 추악한 문제가 모두 녁국부에서 발단이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¹⁹⁾ 석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출신지에 대한 혐오스러움

18) 孫紹祖의 이름은 그 조상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라는 의미다. 그의 祖父는 軍官출신으로 일찍이 榮國府의 권세를 흠모하여 門生으로 있으며 오랜 世交로 왕래했다. 하지만 현재 指揮의 직위를 세습 받은 손소조는 배운망덕하게 迎春을 구박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몰아간다.

19) 秦可卿의 判詞에서 '못난 자손 모두가 영국부에서 나오는가(漫言不肖皆榮出, 발단은 원래부터

을 간직하고 있다. 그녀 자신은 마침내 본가와 단절을 선언하고 있다.(제74회) 그녀는 일찍부터 水月庵의 어린 비구니 智能과 함께 지내면서 제7회에 처음 등장 하던 때에 벌써 설이모의 명으로 궁중에서 면사로 만든 꽃을 전해주러 간 주서택에게 “나중에 머리 깎고 출가하면 이 꽃을 어디에 꽂죠?”라고 말한다. 비록 웃으면서 농담을 한 것이지만 말이 씨가 되고 마는 운명을 보여준다.

이들 네 명의 인물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공통의 이름으로서 《홍루몽》의 주제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배열식 명명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봄의 시작에서 봄의 끝을 상징하는 네 명의 인물에 의해 소설의 내용은 변화 발전해 가는 것이다.

(2) 賈氏자매의 시녀, 琴棋書畫

한편 賈府의 네 자매와 더불어 함께 등장하는 시녀 네 명의 이름도 전형적인 배열법의 방식에 의한 명명이다. 그들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문인들이 언제나 가까이 두고 즐기던 琴棋書畫의 네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각각 한 글자씩 차지하고 별도로 한 글자의 동사를 붙여 우아한 인명을 만들어냈다.

원춘이 궁중에 들어갈 때 데리고 간 시녀는 抱琴이며, 영춘의 시녀는 司棋이고, 탐춘의 시녀는 待書²⁰⁾이며 석춘의 시녀이름은 入畫다. 만약 그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들을 때는 그 이름의 특이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전체를 함께 조망하면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난다. 나머지 세 명의 시녀는 초반부인 제7회에 가서택이 宮花를 아가씨들에게 전해주던 때에 동시에 등장한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그들의 주인 아가씨를 처음 독자들에게 선보인 자리이기 때문에 막상 그들 자신에 대한 밀도 있는 성격 소개는 다음으로 미뤄진다. 抱琴의 경우는

녕국부에 있었도다(造霧開端實在寧) 하였고, <홍루몽곡>에서도 ‘가업이 퇴락함은 경자에서 시작되고(箕裘頽墮皆從敬), 가세가 소멸함은 녕자가 큰 죄였네(家事消亡首罪寧)’라고 읊고 있다.

20) 探春시녀 이름은 초기판본에 이름이 혼동되어 《甲戌本》과 《己卯本》 등에는 待書로 되어 있고 《庚辰本》에는 待書로 된 것을 待書로 고쳤다. 훗날 판본에서는 대부분 待書로 되어 있지만 홍루몽연구소 교주본에선 원본을 따라 待書로 썼으므로 필자도 대서로 통일한다.

일찍부터 원춘을 따라 궁중으로 들어갔으므로 앞에서는 별다른 소개가 없다가 元春이 제17-18회²¹⁾에서 貴妃가 되어 친정나들이를 할 때에 비로소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묘사의 중심은 당연히 元春에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포금은 가볍게 이름만 거론된다. 원춘의 省親의 예가 다 끝나고 다시 賈母의 처소로 와서 사적인 인사를 나눈 뒤에 설이모까지 불러온 연후에야 포금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귀비가 궁중에 들어갈 때 데리고 갔던 시녀 포금 등이 들어와서 대부인께 엎드려 인사를 했다. 대부인 등은 얼른 포금 등을 안아 일으키더니 사람들에게 별실로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하라고 일렀다. (又有賈妃原帶進宮去的丫鬘抱琴等上來叩見, 賈母等連忙扶起, 命人別室款待.)²²⁾

포금의 이름은 그렇게 나오지만, 세심하지 못한 독자들은 그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를 염려한 脂硯齋는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독자를 위해 그 자리에 친절하게도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겨 놓았다.

가씨 집안 네 아가씨의 시녀이름은 가만히 보니 거문고와 바둑과 글씨와 그림의 네 가지 이름으로 배열하고 있다. 참으로 쓸데없는 노력을 줄이면서도 독자의 눈에 환히 들어오게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통속적이면서도 저속하지 않은 기법이라 하겠다. (賈家四釵之環, 暗以琴棋書畫四字列名, 省力之甚, 醒目之甚, 却是俗中不俗處.)²³⁾

이름하여 사기라 하고, 대서라 하고, 입화라 하더니 후에 비로소 포금을 보انش킨다. '금기서화' 네 글자는 가장 속된 글이건만 그 앞에 허자를 하나씩 덧붙이니 또한 신선하고 우아한 맛이 있구나(曰司棋, 曰待書, 曰入畫, 後文補抱琴, 琴棋書畫四字最俗, 上添一虛字則覺新雅.)²⁴⁾

21) 홍무몽연구소 교주본 《紅樓夢》은 초기필사본인 脂硯齋評本 《庚辰本》을 대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第17回至18回>로 두 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未分상태는 이른바 '曹雪芹이 悼紅軒에서 披閱十載, 增刪五次, 纂成目錄'하던 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후대 판본에서는 두 회로 구분했다.

22) 원문에 따르면 元春이 궁중으로 데려간 시녀는 抱琴 한 명만은 아니다. '抱琴等'이라고 한 말이 그걸 증명한다. 다른 자매들에게도 여기에 언급된 시녀 이외에 蓮花, 翠墨, 彩屏 등의 이름이 더 있으니 원춘의 경우에도 물론 포금 한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인물만 언급한 것이다. 작자의 치밀한 묘사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23) 陳慶浩 《新輯》135쪽.

24) 陳慶浩 《新輯》136쪽.

그제야 독자들은 그 네 명의 시녀가 중국 전통의 문인사회에서 항상 가깝게 즐기던 ‘琴棋書畫’의 네 가지 사항을 이용하여 앞애다 한글자의 동사를 덧붙여 명명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시녀의 이름은 그 한사람의 개성을 맞추어 이름지어지지 않고 하나의 그룹별로 명명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들 네 시녀의 이름은 자신들의 운명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지어졌다. 그들은 문인들이 한가함을 달래며 즐기는 琴棋書畫의 이름으로 지어졌으므로 자신들도 모시고 있는 귀족 아가씨의 개별적인 성품이나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琴棋書畫 자체가 그들의 주인 아가씨의 기호와도 관련이 있도록 안배하여 작자의 정교한 설계가 혀를 내두르도록 한다. 元春의 경우에는 거문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迎春의 경우는 처음 등장에서 탐춘과 바둑을 두는 장면(제7회)이 보여지고, 探春은 海棠詩社를 발기한 인물로서(제37회) 그 첫 작품 <詠白海棠>을 지을 정도이니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惜春의 경우에는 화가로서 손색이 없어 大觀園行樂圖를 그리는 장면(제40, 42회)이 묘사되고 있으니 그들의 시녀 이름과도 깊은 상관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아가씨들의 손과 발이 되어 내밀한 속사정까지 함께 하는 가장 가까운 비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의 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운명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제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抱琴은 한번 나타나곤 다시 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원춘은 단 한번의 省親 이후 궁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병사하고 만다. 포금의 운명도 그녀와 함께 있다가 그 후 궁녀로 남았을 것이다. 《홍루몽》에서 그녀의 이름은 琴棋書畫의 배열을 위해 존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司棋는 나약한 주인(영춘)과는 대조적으로 강인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외사촌인 潘又安²⁶⁾과의 밀회가 대관원

25) 《홍루몽》의 이러한 人名안배는 사실상 《금병매》의 선례로부터 제시 받은 바가 많다. 예를 들면 琴棋書畫의 문인취향에 대한 인명도 《금병매》의 경우에는 주인공 서문경이 데리고 다니는 하인 중에 琴童, 棋童, 書童, 畫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曹雪芹은 이를 모델로 삼되, 侍女의 이름으로 바꾸고 또 이 네 글자의 앞에 한 글자씩을 붙여서 흥미로운 이름을 만들었던 것이다.

26) 潘又安은 미남자로 이름난 반안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潘安은 육조 晉나라때의 문인으로 潘安仁이다. 본명은 潘岳이다. 司棋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은 이렇게 또 하나의 미남자라는

수색에서 물증으로 드러나서 쫓겨난 후, 모친의 반대에 머리를 부딪쳐 사랑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장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待書는 강인한 성품과 시녀를 극력 보호하려는 주인(탐춘)과 어울려 역시 자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준다. 入畫는 지극히 결백성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출가를 결심하고 있는 주인(석춘)에 의해 대관원 수색 때는 자신의 오라버니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었다는 죄 아닌 죄목으로 축출되고 마는 불행한 인물로 그려진다.

(3) 賈府의 侍女와 侍童

가씨 집안의 주요 인물에 소속된 시녀들의 이름은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기보다는 그 주인의 성격이나 운명을 암시하는 입장에서 배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가씨 네 자매의 시녀인 琴棋書畫에서 이미 그 일단을 확인하였지만, 《홍루몽》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시녀와 시동을 보유하고 있는 賈寶玉의 경우나²⁷⁾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높은 어른인 史太君(賈母), 가문의 안주인 王夫人 등 주요인물의 시녀를 보면 대부분 작은 그룹으로 묶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배열법에 의한 명명의 예라고 하겠다.

우선 賈母의 시녀는 鴛鴦과 鸚鵡, 琥珀과 翡翠와 珍珠²⁸⁾ 등인데 이들은 모두 가모가 좋아하는 노리개로서의 새나 보석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름으로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27) 賈寶玉이 가장 많은 侍女와 侍童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정말로 이 집안에서 가보옥의 권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소설은 가보옥을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작자는 원근법에 의하여 중심에 가까울수록 상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묘사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묘사의 농도는 약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賈寶玉에게서 가까운 인물들이 빠짐없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28) 이 중에서 鸚鵡와 珍珠는 처음 가모의 시녀였으나 각각 林黛玉와 賈寶玉의 시녀로 주어서 紫鵲과 襲人的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제3회에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제29회에 다시 鸚鵡와 珍珠가 다시 나오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것이 작자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결함으로 보고 있지만, 혹은 또 다른 인물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程乙本》에선 花襲人的 원명을 藥珠로 고쳤다. 꽃이라는 성씨와 조화를 위하여 꽃술이란 뜻으로 바꾼 것이다. 朱一玄 《紅樓夢人物譜》 54-55쪽 및 115쪽 참조.

王夫人의 시녀도 彩雲과 彩霞, 繡鸞과 繡鳳, 金釧兒와 玉釧兒 등과 같이 한 쌍으로 배열을 시키고 있는데 西王母를 둘러싼 구름과 노을, 소식을 알리는 파랑새, 차고 있던 금과 옥의 팔찌 등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금천아와 옥천아는 자매다.

李紈의 시녀 素雲과 碧月은 주인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구름과 달의 색깔로 짝을 이루고 있다.

薛姨母의 시녀도 同貴와 同喜로서 돌림자인데 귀하고 기쁜 일을 바라는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賈寶玉의 시녀들도 다양한 형태로 조합을 이루어 그 명명은 배열법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대부분 각각 짝을 이루어 명명하고 있는데 襲人和 媚人, 晴雯와 綺霞²⁹⁾, 麝月和 檀雲, 春燕과 秋紋, 紫綃와 茜雪, 紅玉과 碧痕, 墜兒와 良兒, 篆兒 등의 이름이 각각 작은 그룹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우선 사람 인자 돌림의 명명, 비 개인 꽃구름과 싸라기 눈, 사향노루와 단향나무의 향기, 봄 제비와 가을 물결 등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보라색과 붉은 색, 붉은 색과 푸른 색 등의 색으로 짝을 이루거나 외자에 兒자 돌림으로 짓고 있다. 이러한 명명은 작자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다. 가보옥은 시녀의 이름을 직접 짓거나, 詩속에 그려 넣기도 하여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름을 직접 개명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襲人の 경우는 《홍루몽》의 중심 인물중의 하나이므로 누구나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가 원래는 가모의 시녀 珍珠였으며, ‘花氣襲人’의 시구에서 개명되었음도 알지만, 여기서 媚人和 짝이 되는 돌림자로서의 명명에 속하는 것임을 아는 독자는 많지 않다. 이 사람은 《庚辰本》 제5회에 보옥이 진가경의 침실에서 낮잠을 잘 때 “습인과 미인, 청문, 사월 등 네 시녀를 남겨두어 지키도록 했다”³⁰⁾는 구절에서 단 한차례 나오고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인물³¹⁾이다. 훗날 《程刻

29) 《庚辰本》의 綺霞는 《程乙本》에서 綺霞로 바뀌게 되는데 싸라기눈이라는 어려운 글자 대신 노을이라는 흔한 글자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30) 홍루몽연구소 교주본은 《경진본》을 따른 판본이므로 이를 다음과 반영하고 있다. <於是衆奶母伏侍寶玉臥好, 款款散了, 只留襲人、媚人、晴雯、麝月四個丫鬢爲伴。秦氏便吩咐小丫鬢們, 好生在廊檐下看著貓兒狗兒打架。>(71쪽).

31) 媚人은 후세 판본에선 없어진 인물이지만 초기 필사본에서 脂硯齋의 評語도 있어 ‘역대소설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붙이고 있다.

本》에서는 이러한 까닭으로 아예 그 이름을 없애고 말았다. 하지만 이처럼 드물게 보인 인물이지만 습인과 더불어 배열법 명명의 실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가보옥은 또 자신이 지은 시에서 사월이와 단운의 이름을 대구로 거론하여 두 사람의 이름이 서로 짝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³²⁾

이밖에 侍童이나 하인의 이름도 대부분 배열법에 의한 명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賈寶玉의 경우를 보면 焙茗과 掃紅, 鋤藥과 引泉, 挑雲과 伴鶴, 雙瑞와 雙壽 등이 각각 쌍을 이루고 있는데, 배명은 차를 끓이고 소홍은 꽃잎을 쓸며, 서약은 약을 캐고 인천은 샘물을 길어오며, 도운은 구름을 끌어오고 반학은 학과 벗한다는 道人이나 隱士의 고상한 취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서롭고 장수한다는 이름으로 짝을 만든 것도 배열법의 하나라고 하겠다. 결국에는 보옥이 속세를 버리고 출가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조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寶璉의 하인으로는 興兒, 旺兒, 慶兒, 隆兒, 昭兒 등이 있는데 하나같이 외자를 써서 兒자 돌림으로 한 것도 재물이 많아지고 융성해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원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명명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賈氏문중과 王侯명명

가문의 항렬에 따른 명명법은 귀족집안에서 언제나 중시되었던 것이다. 가씨 집안의 경우, 五代에 걸친 인물이 등장하며 제2회에서 냉자흥에 의하여 전반적인 인물구성을 먼저 대강 밝혀놓고 있다. 각 세대별로는 돌림자 혹은 돌림자 변을 쓰고 있으며 주인공인 가보옥은 四代제다. 전통적인 가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항렬에 의한 위계질서라고 할 수 있다. 가계는 寧國부와 榮國부를 중심으로 그리

32) <夏夜卽事>詩(제23회)의 “창문 밝아오자 사월이는 궁중 거울을 열어보고, 방안이 그윽해 지자 단운은 어사향을 맡아보네(窓明霹靂開宮境, 室霧檀雲品御香)”와 <芙蓉女兒誄>(제78회)의 “거울 갈라지고 난새 날아가니 슬픔 속에 차마 사월의 화장대를 열기 어렵고, 빛은 사라지고 용은 날아가니 슬픔에 젖어 단운의 빗살만 부러뜨렸네(鏡分鸞別, 愁開霹靂之奩, 梳化龍飛, 哀折檀雲之齒)”하는 대목이다. 趙岡 <紅樓夢裡的人名> 참조.

고 있지만 가보옥을 중심으로 묘사되는 본 소설에서는 가보옥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소략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寧國公에게는 장자인 賈代化 이외에 세 명의 아들이 더 있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³³⁾ 작은댁에 속하는 榮國公에게는 장자 賈代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獨子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次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賈母는 바로 가대선의 처다. 슬하에 二男一女를 두었으니 바로 賈赦와 賈政, 그리고 출가한 賈敏이다. 寶玉은 가정의 삼남매 중에서 막내, 두 아들 중에서 次子로 태어났다. 하지만 누나는 입궁하고 형은 요절하여 실질적으로 왕부인의 외아들과 같은 형국을 띠고 있다. 물론 배다른 여동생 탐춘과 남동생 가환이 있지만 조모인 賈母는 그를 손안에 든 보배처럼 여긴다. 주인공 가보옥은 이처럼 사대에 걸쳐 차남의 위치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³⁴⁾

第一代는 이야기의 淵源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물 水자 변으로 賈演과 賈源으로 하였다. 개국공신으로서 이 집안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焦大의 입을 통해(제7회) 그들이 피비릿내 나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오늘의 영광을 일으킨 장본인임을 알 수가 있다. 第二代에서는 대를 물려 영화를 누리간다는 의미에서 代자를 돌림으로 하고 代化, 代善으로 교화, 선행이란 유가적 덕목을 담고 있다. 가속의 훈장으로 있는 賈代儒도 먼 친척으로 같은 항렬이다. 第三代에 이르면 글공부로 출세하라는 의미를 담아 등글월 文자변인데 賈敷, 賈敬, 賈赦, 賈政 등이 그들이며, 여자에게까지 돌림자를 써서 임대옥의 모친은 賈敏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가정 한사람이 글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한 상태이고 科擧로 출세하고자 하였으나 功臣의 후예임을 인정받아 특별히 발탁되어 실질적인 벼슬을 산다. 賈敏의 경우는 이 집안에서 유일한 출가한 딸의 신분으로 나오는데 물론 임대옥의 모

33) 그들의 후에 중에 현재 알려져 있는 인물은 賈蕃이다. 賈蕃에 대해 제9회에선 '역시 寧國府의 嫡派 玄孫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34) 寶玉의 호칭으로 寶二爺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賈璉의 호칭으로 璉二爺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문이 있다. 가련의 형이 있었다고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賈母의 장남부부로 賈赦와 邢夫人이 있는데 굳이 이 집안의 중심이 賈政과 王夫人에게 와 있는지 불확실하다. <홍루몽>에선 차남이 중심을 이루는 대목이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친이기 때문이며, 그나마 직접 등장하지 않고 병사한 이후에 남에 의해 거론되는 게 전부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가문의 딸이 적게 등장하는 것은 가보옥과의 관련성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第四代에 이르면 바로 주인공 賈寶玉의 항렬이다. 돌림자는 구슬 옥자변을 쓰게 되었다. 녕국부의 賈珍과 보옥의 사촌형 賈璉, 요절한 친형 賈珠, 이복 동생 賈環 등이 모두 구슬 옥자 돌림이다. 옥이 상징하는 이미지에 따라 최고의 가치를 부여 받은 실질적으로 부귀를 누리는 세대라고도 하겠다.

문제는 賈寶玉이다. 그는 형제 항렬과는 달리 두 글자 이름을 쓰고 있다. 옥자를 변방으로 쓰지 않고 그냥 寶玉이라고 쓴다. 같은 항렬의 여자들이 원춘, 영춘 등으로 두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는 여성적인 이름을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가 사랑하던 여자 林黛玉과는 같은 옥자 돌림으로서³⁵⁾ 이름만으로는 둘 다 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될 때도 있다³⁶⁾. 작품 앞 대목에서 冷子興은 분명히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입에 옥을 물고 나왔으므로 寶玉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다른 여러 곳에서도 강조되고 또 널리 인정받는 명명의 유래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과 이 집안 구슬 옥자변 돌림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賈珍과 賈璉과 賈珠는 구슬 옥자를 변으로 써서 돌림자를 만들지 않았던가. 주인공 가보옥의 특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가문의 항렬에서 나중에 태어난 인물이지만, 소설가의 머릿속에서는 가장 먼저 탄생된 주인공이다. 먼저 그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나머지가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女媧신화가 있고 大荒山 青埂峰의 돌이 있고 그리고 옥이 생겼다. 그의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 집안의 항렬에서 그의 세대에 와서는 옥자변이 만들어졌다. 그의 이름은 또 그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운명적 사랑을 나눈 임대옥과 이승에서 금옥의 인연으로 만나 결혼한 설보차의 이름의 한 글자씩을 합쳐서 만든 이름이기도 하다. 그들 두 여자

35) 여기 남녀주인공이 모두 옥자를 쓰고 있다는 점에 의해 이 글자는 더없이 소중한 글자로 승격되었으며 林之孝의 딸로 怡紅院의 하녀인 紅玉은 옥자를 떼어내고 小紅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避諱에서 詳論함.

36) 1842년 독일 선교사 칼 쿠츠라프(Karl A.F. Gutzlaff)는 <홍루의 꿈>을 <중국문고(Chinese Repository)>권11(中國廣州版)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내용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공 가보옥을 소녀로 'The lady Pauyu'라고 번역한 적도 있었다. 拙著 <清代紅學研究>364쪽 참조.

에게서 만들어진 보옥이란 인물은 그래서 이 영원한 슬픈 사랑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第五代째는 풀 草자를 돌림으로 하는데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상징한다. 황폐한 세대를 지나 진정 희망의 세대라고나 할까. 하지만 寧國府의 賈蓉이나 종손 賈薔 등에게 별다른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일찍 과부가 된 李紈의 아들로 나오는 賈蘭은 소설에서 거의 별다른 묘사가 없다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는 영광을 안게 되는데 가보옥이 과거시험장에서 귀가하지 않고 出家를 한 이후에는 이 집안의 실질적인 희망의 등불이 된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蘭桂齊放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와 더불어 가보옥의 유복자로 태어날 사람(이름이 賈桂가 될 것이라고 봄)이 이 무너져 가는 가문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조짐을 보여준다. 五代에 걸쳐 百年望族의 가문을 형성한 賈氏 집안의 명명도 여느 귀족가문과 마찬가지로 五行의 변화에 따른 돌림자를 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인공 賈寶玉을 중심으로 역으로 만들어진 작자 曹雪芹의 창조물임을 감안하면 그 정교한 안배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四大 귀족가문 중에서 나머지 세 가문의 인물은 실질적으로 그다지 많이 그리고 있지 않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줄이거나 생략하는 기법을 잘 알고 있는 曹雪芹이 억지로 필요 없는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지어서 채워 넣을 리가 없다. 작자는 스스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였고 또 그림의 이론에 대해서도 정교한 논리를 펼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遠近法을 무시한 채 아무 상관없는 인물을 무턱대고 만들어서 허수아비처럼 세워 놓을 리가 없는 것이다.

四大家門이라고 했지만, 작자가 신경을 쓰는 인물은 가보옥의 관심이 모아지는 일부 인물에 국한된다. 史氏에선 史湘雲에게 시점이 모아지고, 王氏에서는 사촌형수이면서 원래 외사촌 누나이기도 한 王熙鳳에 중점이 있으며, 薛氏에선 당연히 薛寶釵를 중심으로 그려진다. 그녀에 의해 그 사촌인 薛寶琴도 등장한다.

이어서 군왕과 공후가의 명명에 대해 살펴본다. 郡王과 公侯世家的 명칭은 개인적인 명명이 아니라 국가적인 통치행위의 하나로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물론 실제 생활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고 허구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명명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감안한 배열법을 쓰게 되어 있다.

《홍루몽》에서는 황제의 아래 동서남북의 네 郡王을 만들어 놓고 있다³⁷⁾. 그 명칭은 각각 東平郡王, 南安郡王, 西寧郡王³⁸⁾, 北靜郡王³⁹⁾으로 되어서 平安寧靜의 배열로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다음은 공후세가의 명명이다. 賈氏 집안은 바로 公爵의 지위에 있었다. 앞서 말한대로 寧國과 榮國의 의미도 안녕과 번영을 의미한다. 당시 개국공신에는 八公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鎮國公(牛淸)⁴⁰⁾, 理國公(柳曄), 齊國公(陳翼), 治國公(馬魁), 修國公(侯曉明), 繕國公(미상)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후손이름도 한둘씩 거론하고 있지만 상세하지는 않다. 당시 공후세가들의 왕래가 지속되어 이른바 世交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후작으로는 史氏가문인 忠靖侯(史鼎)와 保齡侯(史鼐)가 있고 또 襄陽侯(戚氏), 錦鄉侯, 川寧侯도 나온다. 伯爵으로는 壽山伯이 있다. 이밖에 神武將軍(후손 馮紫英)이 있다.

작자는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四王八公의 명칭을 만들어 놓고 성씨와 그 후손까지 간략하게 덧붙이고 있다. 賈府는 公爵이므로 이들 사이의 긴밀한 왕래는 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다. 제13회 秦可卿의 장례에 이들이 대거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北靜王의 생일날 가보옥이 부친을 따라 축하 인사를

37) 별도로 義忠親王이 있지만 상세한 설명이나 같은 유형의 친왕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다. 친왕은 郡王의 위에 있었다. 이는 청대의 제도다.

38) 東平郡王과는 별도로 제3회 榮國府 榮禧堂의 對聯을 쓴 인물로 東安郡王(穆蔭)라는 이름이 나오고 西寧郡王과는 별도로 제105회 의금부에서 가사의 재산을 몰수하고자 할 때 西平郡王의 이름이 나온다. 東西南北의 네 군왕의 배치는 제13회에 일괄적으로 나오는데 이처럼 별도 언급된 곳에서는 이름이 달라 예외로 다른 이름이거나 혹은 작자의 혼동이라고 하겠다.

39) 賈府와 가장 가까운 왕래를 하는 군왕은 北靜王이다. 특히 가보옥에 대해 흠모하여 초면시에 璽上이 직접 하사한 鵝鴨香念珠를 선물로 주기도 한다. 훗날 賈府가 몰수당할 때 나서서 변호한다. 이름은 脂評本에서 水滸이라고 했다. 《程刻本》에서 世榮으로 바꾸었으나 신교주본에서는 수용으로 쓴다. 고중학자들은 이 사람이 실제로 曹雪芹 가문과 긴밀하게 왕래하였던 怡賢親王(允祥)을 모델로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제2대 怡親王(弘曉)은 문학과 소설에 호가로서 冰玉主人의 별호를 가지고 있다. 水滸의 이름이 혹시 빙옥과 관련 있을 지도 모른다. 현재 북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脂評本인 《己卯本》(己卯冬月定本)은 바로 怡親王府에서 초록하여 소장한 것이었다. 祥자와 曉자를 避諱하여 晝수를 적게 쓰고 있다.

40) 성을 牛氏로 잡은 것은 唐나라 때 유명한 재상 가문 牛氏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거나 賈母의 팔순잔치에 그가 축수를 온 것과 같은 일도 그러한 교류의 하나다. 侯爵이후의 상세한 내용은 더 이상 붙이지 않았다. 군더더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은 군왕이나 공후의 이름을 명명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열법의 기법으로 만든 것이다.

4. 寶黛釵의 명명과 관계

《홍루몽》의 애정중심선상에서 본다면⁴¹⁾ 남녀 주인공은 단연 가보옥과 임대옥과 설보차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賈寶玉의 이름은 옥을 물고 태어났다는 데서 유래한다. 처음에는 냉자홍의 입을 통해 가우촌에게 전해진 내용이지만 곧 습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대옥의 상경 첫날 보옥이 대옥을 만나자마자 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은 것은 그녀의 이름에도 옥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구슬은 아주 귀하고 드문 것인데 아무나 가질 수가 있나요?” 라고 대답하자, 보옥은 돌연 발작을 하며 通靈寶玉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가모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보옥을 달래기 위해 원래는 대옥이도 그런 옥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옥이 엄마가 돌아가실 때 딸을 보듯이 보라고 함께 묻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비록 거짓말이라고 해도 어쨌든 대옥의 이름에 옥자를 쓰게 된 것은 역시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옥과 대옥은 전생에서 각각 神瑛侍者和 絳珠仙草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神瑛侍者는 또 女媧補天에서 남겨진 頑石이었으므로 결국 돌과 초목의 만남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지금 이승에 와서 그들은 보옥과 대옥의 이름으로 다시 만났지만 그들 사이에는 木石의 인연이 있었다는 것이다. 보옥의 이름에서 돌의 흔적을 생각하기는 쉽다. 돌 중에서 단단하고 귀한 것이 바로 옥이기 때문이다.

41) 《홍루몽》의 구성분석에서 주된 흐름(主線)을 이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경향이다. 그러나 賈寶玉의 이름이 玉으로 끝나고 林黛玉의 이름이 玉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寶玉의 이름이 玉으로 끝나고 黛玉의 이름이 玉으로 끝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寶玉의 이름이 玉으로 끝나고 黛玉의 이름이 玉으로 끝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寶玉의 이름이 玉으로 끝나고 黛玉의 이름이 玉으로 끝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寶玉의 이름이 玉으로 끝나고 黛玉의 이름이 玉으로 끝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옥의 이름에서 나무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보옥은 그녀와의 첫대면에서 黛는 서방의 돌 이름으로 눈썹을 그리는 먹으로 썼다고 했다. 그녀가 草木을 대표한다는 사실은 전생에서나 알 수 있는 일이며 독자만이 이해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목석의 인연이란 있을 수 없다. 돌도 지금은 이미 옥으로 변해 있기 때문이다.

보옥이 매일 목에 걸고 다니는 通靈寶玉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작자는 여러 번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연출하면서도 막상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진사은이 스님의 손에 든 옥을 보고자 했지만 안 보여주고, 임대옥이 처음 온 날 밤에 이에 대한 말끝에 습인이 지금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도 밤이 늦었으니 내일 보자고 하면서 역시 기회를 놓친다.

보옥(통령보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제8회, 그것도 설보차의 방에 찾아갔을 때이다. 곁에서 보던 앵아의 언급 덕분에 설보차가 차고 있던 금쇄도 함께 보게 된다. 이승에서 금옥의 인연을 만들어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차의 이름은 설씨 집안의 딸들이 보자 돌림이었으므로 비녀 釵자를 쓰게 된 것만 따져보면 된다. 그녀가 금쇄를 얻은 것은 어렸을 때다. 전생에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승에서는 금과 옥의 만남이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보차와 대옥 두 사람 사이에는 先後의 구분이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자. 눈자들은 주인공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寶黛釵라고 하지만, 대옥과 보차 두 사람을 지칭할 때는 순서를 바꾸어 釵黛라고 한다.⁴²⁾ 보옥을 지칭하거나 호칭하는 말로 寶二爺, 寶哥哥 등이 있으므로 寶자를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로 玉兄으로 부르거나 忙玉로 지칭하기도 하고 濁玉으로 자칭하기도 하였으므로 역시 玉자를 이름의 대표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옥의 경우에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보다는 林妹妹, 林姑娘 등

42) 俞平伯은 일찍이 釵黛合一論을 주장하였다. 그의 몇 가지 총학주장 가운데 하나인 이 이론은 보차와 대옥이 마치 서로 마주하는 두 봉우리나 두 줄기 강물처럼 서로가 상하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봉건주의를 주장하던 20세기 50년대의 신진 학자들은 유평백의 이러한 전통적 관념에 대대적인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여 정치 운동으로 비화된다. 필자는 유평백의 釵黛合一論에 여전히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근년에 나온 吳曉南의 《釵黛合一新論：紅樓夢人物結構關係研究》는 이를 발전시킨 연구성과다.

으로 성이 불려졌고, 寶寶에서 온 寶姑娘, 寶丫頭 등의 호칭이 있었으나 黛자를 이용한 호칭은 없었다. 하지만 보차의 경우에는 설씨를 이용한 호칭은 없고 오히려 이름의 첫 글자를 써서 寶姐姐, 寶姑娘 등으로 불렸다. 이렇게 보면 세 사람의 경우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별한 연유를 밝힌 바도 없고 납득할만한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현실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번 부르기 시작하여 습관이 된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결국 보옥과 보차는 같은 형태로 불려 모종의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보옥과 보차는 元春이 궁중에서 선물을 보낼 때도 같은 급으로 정하였고, 심지어 똑같이 唐詩에 그 出典을 가지고 있기도 하여⁴³⁾ 더욱 동질성을 보여준다. 대옥을 굳이 성씨로 부른 까닭은 그의 성씨를 특별히 의식하였기 때문인지 모른다. 紫鵲이 보옥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시험 때 발작하여 와병한 보옥이 林妹妹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林氏가 될 수 없다고 소리친 것은 (제57회)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도 있다.

주요 인물의 운명이 그림과 함께 시로 적힌 金陵十二釵 正冊에는 11장의 그림과 11편의 判詞가 붙여 나온다. 모두 12명인데 유독 첫 그림에만 두 사람의 사연이 함께 그려져 있다. 그림의 위에는 마른 나무 두 그루에 허리띠가 걸려있고, 아래에는 하얗게 쌓인 눈에 금비녀가 묻혀있는 것이다. 전자는 임대옥을 후지는 설보차의 이름을 담고 있다. 이어서 네 구의 시구는 이렇게 엇갈리게 두 사람을 그린다.

베를 멈춰 격려한 덕성이 안타깝고	可嘆停機德,
버들 숲 노래부른 재주가 가련하다	堪憐詠絮才.
옥 허리띠 숲 속에 걸려있고	玉帶林中掛,
금비녀는 눈 속에 묻혀버렸네	金簪雪裏埋.

처음에는 보차와 대옥의 순서로 그 덕성과 재주를 읊더니 뒤에는 대옥과 보차의 순서로 안타까운 운명의 결말을 그려내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대단히 공평한 대우를 보여준다. 이어서 나오는 '홍루몽곡'⁴⁴⁾에서도 <第一支 紅樓夢引子>에서

43) 唐代 岑參의 <送張子尉南>詩에 '此鄉多寶玉'의 구절이 있고, 李商隱의 <殘花>에는 '寶釵無日不生塵'이란 구절도 있다. 이를 언급하는 대목은 제63회에 나옴.

44) 원래 警幻仙姑는 '새로 만든 紅樓夢十二支'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불려진 것은 서곡과 종장을

'금과 옥을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홍루몽 열두 곡을 연출하노라(演出這懷金悼玉的紅樓夢)'하였다. 금과 옥은 전체적으로 薄命司의 모든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설보차와 임대옥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감정표현을 懷(懷念)와 悼(哀悼)로 구분한 것은 각각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第二支 終身誤>는 寶釵의 입장에서 그린 것이고, <第三支 枉凝眉>는 黛玉의 입장에서 그려진 것이지만, 두 곡에는 모두 寶玉과 寶釵, 黛玉의 이야기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연구자들이 ≪홍루몽≫의 중심이야기를 寶黛애정비극으로만 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寶黛釵 애정혼인 비극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보옥의 입장에서 연인으로서의 대옥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간직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승의 인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보차에 대한 동정과 懷念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의 괴로움은 연인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서도 연유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마음은 대옥에게 가 있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기왕에 부부의 인연을 맺은 설보차에 대해서도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앞서 살펴본 판사나 곡에서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서도 엇갈려가며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작자가 특별히 신경 써서 안배한 결과다. 제3회에 임대옥이 등장하자, 곧 이어서 제4회에 설보차가 나타난다. 대옥의 마음의 병은 보차의 출현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제5회에서 태허환경을 꿈꾸다가 경환선고에 의해 누이라고 소개된 여인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런데 그녀의 유명은 兼美이고 자는 可卿이라고 했다. 보옥의 눈에 그녀는 바로 설보차와 임대옥의 아름다움을 모두 겸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보차와 대옥의 몸과 마음을 합친 여성과 부부의 인연으로 맺은 것은 하지만 꿈일 뿐이었다.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상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현실에서는 그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서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는 그의 선택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이 상황은 그에게 그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의 탄식 중에 '無可奈何'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입장을 잘 표현해 준다.

합쳐 14곡에 이른다. 나머지 12곡은 한 인물씩 그린 것이지만 보차와 대옥의 것은 서로 뒤섞여서 함께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보옥의 이름은 보차와 대옥의 이름자에서 한 글자씩을 떼어 만들어졌다. 혹은 그 보다도 보옥의 이름을 한 글자씩 떼어내어 그들의 이름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그 세 사람은 서로 떼 수 없는 깊은 관계가 된 것이다. 권두에서는 曹雪芹이 悼紅軒에서 십 년 간 열람하고 다섯 번 침삭을 거친 후에 목록을 만들고 장회를 나는 뒤에 제목을 《金陵十二釵》라고 했다고 했다. 《석두기》나 《정승록》이란 이름은 가보옥의 전생과 후생에 비추어 지어진 제목이지만, 《금릉십이차》는 보차와 대옥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여성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운 제목이다. 앞서 나온 ‘懷金悼玉’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홍루몽》의 이름은 물론 훨씬 더 확대된 의미에서 그러한 부귀와 사랑의 세계가 꿈같이 흘러갔음을 탄식하는 의미로 좀더 예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寶와 玉에 얽힌 이름 이야기를 좀더 천착해 보자. 이 책에는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이름에 寶자가 들어있는 사람이 네 명 나온다. 寶玉과 寶釵와 寶琴과 寶蟾이다. 또 이름에 玉자가 들어가는 사람도 네 명이 나오는데 역시 寶玉을 비롯하여 黛玉과 妙玉과 紅玉이다. 이들 일곱 사람의 이름을 세워 놓으면 하나의 탑을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七人の 寶塔이란 것이다. 그 정점에 보옥이 우뚝 서 있다. 賈府에서 보옥의 이름은 널리 많이 부르도록 권장하였지만 보차와 옥자를 함부로 쓰게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의 이름을 받치고 있는 이들 여섯 명의 이름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보옥을 받치고 있는 두 인물은 물론 보차와 대옥이다. 모두 최고의 인물임이 틀림없다. 난형난제, 막상막하의 인물들이다. 그 아래에 설보차의 사촌누이 薛寶琴과 櫳翠庵의 비구니 妙玉이다. 보금은 보차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미모와 식견을 지니고 있다. 가모가 매우 총애하여 한때는 보옥의 배필로 만들 생각까지 하였으나 이미 남과 정혼한 사이라고 하여 그만두었다. 어려서 각지의 명산을 가본 적이 있어 회고시를 잘 지었고 眞眞國 女兒詩도 지어 보인다. 보옥은 蘇州의 선비 집안 출신으로 기품은 수려하나 성격은 괴팍하여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부모를 여의고 어려서 출가했다. 大觀園 낙성 때 가부의 농취암에 들어와 머리를 기른 비구니로 수행을 한다. 보옥의 생일에 축하 편지를 보내는 등 속세의 미련이

남아 있다. 금룡십이차의 인물로 나오며 그녀의 불행한 결말은 보옥의 깊은 동정을 받는다. 寶釵는 하급계가 설반에게 시집오면서 데려온 하녀다. 향릉을 제압하기 위해 보섬을 이용한다. 紅玉은 원래 林之孝의 딸이며 怡紅院의 삼등 시녀다. 보옥에게 접근하고자 했으나 높은 시녀들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왕희봉에게로 간다. 보옥과 대옥의 옥자를 피휘하여 小紅으로 개명하였다.

寶자와 玉자가 들어간 나머지 인물을 잘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寶자 인물은 寶釵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다. 보금과 보섬이 모두 그러하다. 보차와 보금은 돌립자 보자를 쓴 것이니 당연하고 보섬은 하녀지만 하급계가 데려왔으니 미리 피휘를 할 수 없었던 인물이다. 공교롭게 한군데 모인 셈이다. 역시 보옥의 쪽에서는 관장할 수 없는 관계다.

玉자 인물은 黛玉과는 조금씩 상관 관계가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묘옥은 대옥이와 같이 蘇州의 선비집안 출신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고 한 것도 대옥과 비슷하다. 대옥은 다행히 외가에 얹혀 살고 있지만 묘옥은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던 것이다. 대옥이도 어려서 세 살 때 나두창을 앓는 중이 와서 출가시키라고 권한 적이 있다. 똑같은 상황이 역시 소주에 살았던 甄英蓮에게서 일어났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평생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옥의 부모도 진사은처럼 미친 중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옥의 경우에 굳이 입대옥과 비슷한 점을 찾는다면 일단 그녀의 성이 林氏라는 점이 착안된다. 가보옥이 紫鵲의 말 때문에 대옥이 진짜 남쪽으로 돌아가는 줄로 알고 큰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임지효택 등이 문병을 오는 소리를 듣고는 소주의 林氏네 집에서 대옥을 데리러 왔다고 여기며 놀라면서 '대옥 누이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임가성을 가질 수 없다'⁴⁵⁾라고 소리를 친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피휘 글자에 수풀 林자도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 林紅玉은 바로 그 입대옥과 단 한글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紅자는 바로 가보옥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아니던가. 보옥은 어려서부터 여자아이 입술에 바른 연지를 빨아먹기 좋아했다. 이를 하여 '吃紅'이다. 살고 있는 집이 怡紅院이고 그 방은 絳芸軒(강은 붉은 색임)이다.

45) 제57회 除了林妹妹都不許姓林的.

임대옥 자신이 전생에서 絳珠仙草, 絳珠仙子였으니 絳珠를 달리 번역하면 바로 붉은 구슬, 즉 홍옥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름만으로 본다면 임홍옥은 임대옥의 또 다른 거울과 같은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脂硯齋의 기록에 의하면 원작의 후반부에서 가보옥을 구출하고 돕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통행본에선 없어졌다. 어쨌든 임대옥과 관련있는 인물로 쳐도 좋을 것이다.

앞서 보옥의 이름을 한 글자씩 쓴 인물이 각각 세 명씩 있다고 했으나 그것은 후반부에 이르도록 나오는 인물을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소인물로서 전반부에 등장했던 寶官과 玉官도 그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들도 대관원 낙성대 蘇州에서 사들여온 12명의 연극배우에 속하는 사람이다. 12명의 인물 중에는 풀草자 돌림으로 불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은 예외였다. 특기할 것은 보관은 남자역할인 소생역을 맡았고 옥관은 여자역인 정단역을 맡았다는 정도이다. 그들은 제57회에 家班을 해체할 때 남은 8명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그 때 밖으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진가경에 관한 얘기는 앞서 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 두 명의 시녀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瑞珠이고 또 하나는 寶珠다. 제13회에서 진가경이 죽자 두 시녀 중 서주는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주인을 따라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殉死했다고 칭송하여 함께 장례 지내라고 했다. 그러자 보주는 스스로 주인의 義女가 되겠다고 나서서 喪主가 되었다. 사람들이 역시 치하할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보주는 장례가 끝나고 鐵監寺에서 끝끝내 귀가하지 않으려고 하여 그대로 남겨두었다. 출가했다는 말이다. 그들의 인생은 그 정도로 나오고 사라지지만 진가경과의 관계에서 보면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가경은 태허환경에서 兼美라는 자를 가지고 있었다. 보옥의 첫눈에 그녀는 한편으로 대옥의 모습으로, 한편으로 보차의 모습을 담고 있었으므로 그 겸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두 사람의 종합이라는 의미가 된다. 시녀의 이름은 보주와 서주이지만 서주는 결국 구슬이란 뜻으로 통하므로 굳이 나누자면 보차와 대옥의 편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일찍 끝이 나고 말았을 뿐이다.

이상으로 이름으로 풀어보는 주인공의 깊은 상관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겠다. 처음으로 《홍루몽》을 접하는 독자들은 이러한 설정 자체에서 상당히

근혹스러운 느낌을 떨치지 못한다. 중국역대 최고의 명작이라고 이름난 이 작품의 서두에서 그 설정된 내용들은 장난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멀고 먼 신화세계의 이야기에서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발상으로 돌이 옥이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입 속에 옥이 들어있고 그래서 사내아이의 이름을 곧장 보옥이라고 지어버리고, 이어서 이모의 딸과 고모의 딸이 와서 함께 지내게 되고, 그런데 그중 한사람은 전생의 인연이 있어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한사람은 이승의 인연이 있어 결국 부부로 맺어지고 만다는 얘기.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는 어찌면 식상함을 떠나 근친상간이란 심각한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뜨악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곧 이들의 상관관계를 이처럼 정교하게 안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것처럼 깊고 은은하게 담을 수 있었던 작자의 혜안과 기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雅號와 別名의 부여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역대 문인들은 이름과 字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別號를 지어서 사용하였다. 號가 이름이나 字와 다른 것은 그것은 대체로 본인의 취향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名과 字가 집안 어른이나 스승과 같은 남에 의해 만들어져 불린다면, 호는 자신이 새롭게 정하는 것이다. 때로 주변인물이 제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자신의 동의 하에 사용되는 것이며 나이가 든 이후에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 名과 字의 경우는 한 두 글자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號는 두 세 글자에서 심지어 여덟 아홉 글자에 이르기기도 한다. 이밖에 號의 경우는 개인적인 취향의 변천에 따라 수시로 새로 만들기도 하므로 여러 개를 동시에 보유하며 사용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名字의 경우가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도록 사용하게 되어 비교적 장중하고 무게가 있다고 한다면, 號는 언제든지 새로 만들어 쓸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가볍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띤다.

《홍루몽》 인물 중에는 자를 드러낸 경우가 많지 않지만 가보옥에 의해 지어진 임대옥의 字는 두고두고 많이 쓰이고 있다. 보옥의 대옥의 表字를 물었을 때 대옥이 없다고 대답하자 보옥이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내가 누이한테 멋진 자(字)를 선물해야겠군. ‘빈빈(嚶嚶)’ 두 글자가 가장 좋을 거 같은데 말이야 어때. (我送妹妹一妙字, 莫若「嚶嚶」二字極妙.)

탐춘이 옆에 있다가 그典故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으니, 보옥은 그 근거를 이렇게 밝힌다.

《고금인물통고》에 보면 말야, ‘서방에 돌이 있으니 그 이름을 대(黛)라고 하고 눈썹을 그리는 먹으로 쓴다’고 했거든. 더구나 이 누이는 눈썹 끝을 약간은 찡그리듯 하니까 이 두 글자를 취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딴어!

(《古今人物通考》上說: ‘西方有石名黛, 可代畫眉之墨.’ 況這林妹妹眉尖若蹙, 用取這兩個字, 豈不兩妙!)

물론 이 말은 그대로 믿은 만한 정보는 아니다. 탐춘이 웃으면서 그 책이 재밌대로 지어낸 것일 거라고 빈정대었을 때 보옥은 굳이 부정하지 않으면서 세상에는 《四書》를 제외하면 멋대로 만든 책이 너무나 많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썹을 찡그리는 대옥의 특징은 그대로 역사상 유명한 西施의 그것에 해당한다.⁴⁶⁾ 보옥의 눈에 비친 대옥의 모습을 그린 구절은 이러하다.

찡그리는 듯 아닌 듯이 푸른 연기 걸린 듯한 굵은 두 눈썹, 기뻐하는 듯 아닌 듯이 정을 담뱃 머금은 두 눈썹. (兩顰似蹙非蹙眉, 一雙似喜非喜含情目).

총명한 마음은 비간(比干)보다 한 수 더하고 병약한 교태는 서시(西施)를 뛰어넘는다. (心較比干多一竅, 病如西子勝三分).

대옥을 지칭하거나 가까운 사이에서 직접 호칭하는 이름 중에는 바로 이 嚶嚶을

46) 한편 다른 대목에서는 林黛玉와 薛寶釵를 각각 趙飛燕과 楊貴妃로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하늘 하늘한 자태와 풍만한 모습의 신체적 특징을 그렇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제27회)

사용하여 顰兒, 顰丫頭 혹은 顰姑娘 등의 이름이 그녀의 대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 독자들만 아는 임대옥의 전생은 絳珠仙草이었으며, 태허환경에서는 絳珠仙子라는 선녀의 이름으로 통했다.

寶玉의 경우, 실제로 字는 보이지 않는다. 대옥을 보자마자 자가 무어나고 물은 것은 마치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투였는데 그렇다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문중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물론 전생에서 神瑛侍者이기도 하였고, 女媧遺石으로 大荒山의 頑石이기도 했으며, 空空道人과의 논쟁 때는 石兄으로, 脂硯齋 등으로부터는 玉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제8회에서 문지방 위에 붓글씨로 '絳芸軒'이라고 써 붙인 적이 있다. 후에 絳洞花主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 훗날 묘옥이 그의 생일에 축하서신을 보내면서 檻外人이라고 자칭했을 때(제63회)⁴⁷⁾ 보옥은 檻內人이라고 서명한다. 물론 보옥의 별호로 만든 것이지만 여기서 일회성으로만 쓰이고 만다.⁴⁸⁾

오늘날의 시 모임과 같은 詩社는 제37회에 시작된다. 探春에 발기된 '海棠詩社'가 그것이다. 이들은 여기에서 고상한 시를 짓고 그 뒤에 각각 새로 만든 아호를 덧붙이기로 하는데 그 명명의 과정을 다음과 같다.

시 모임에 참가하는 詩 同人들은 가보옥을 제외하면 모두가 여성인물이며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서로가 가까운 인척사이가 되므로 상호간에 정식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칭으로 대신하였다. 하지만 시를 지어 품평하는 모임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별호를 지어서 서로 평등하고 격의 없이 부르자고 제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임대옥이다. 그러자 좌장이 된 이환이 동의한다. 그리하여 각각 별호를 만들게 되는데 혹은 스스로 좋아하는 호를 붙이기도 하고 곁에서 적절한 호를 제의하여 여러 사람이 옳다 여기게 되어 결정되기도 하였다.

우선 李紈은 스스로 稻香老農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거처하는 집인 稻香村을 활용한 것이다. 探春도 처음에는 자신의 거처인 秋爽齋를 생각하여 秋爽居士로 정하

47) 范成大的 시구인 '縱有千年鐵門檻, 終須一個土饅頭'에서 온 말이다. 이 구절은 脂評(제15회)과 曹雪芹의 조부인 曹寅의 <楳嶠齋>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48) 한편 보옥과 대옥을 동시에 지칭할 때 각각 玉과 顰으로 대체한 경우가 있다. 제57회 회목의 慧榮謝情辭忙玉, 慧姨媽愛語慰痴顰에서 보인다. 이 때 옥자 앞의 忙자는 그의 별명 無事忙에서 따온 것이고, 顰자 앞의 痴자는 대옥의 어리석음을 수식한 것이다.

였으나 寶玉이 그를 마땅치 않다고 여기며 정원에 심겨진 오동나무와 파초를 보고 서 탐춘이 평소 파초를 좋아함을 알고 蕉下客으로 하자고 하여 결정되었다. 동일한 형태의 명명을 기피한 까닭이다.

黛玉의 별호에 대해서는 探春이 건의하는데 그녀가 거처하는 瀟湘館에서 아이 디어를 내고 또 대옥이 잘 운다는 점에 착안하여 娥皇과 女英의 눈물로 이뤄졌다는 斑竹의 전고를 비유하며 瀟湘妃子라고 붙이자고 하였다. 그의 거처명에서 왔지만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이며, 太虛幻境에서의 絳珠仙子와도 비유되는 이름이라고 하겠다. 李紈은 寶釵에게 거두절미하고 蘅蕪苑이라는 그녀의 거처명을 따서 蘅蕪君으로 별호를 지어주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탐춘이 좋다고 하니 그대로 정해진다.

寶玉이 자신의 것을 물으니, 방금 별호를 받은 寶釵가 농담으로 보옥에게는 無事忙이 좋겠다고 말한다. '하는 일 없이 바쁜 사람'이란 뜻으로 보옥의 생활모습을 농이나마 잘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건 그저 놀리는 투에 속하기 때문에 李紈에 의해 絳洞花主라는 우아하고 의미심장한 별호를 받는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방 문지방에 絳芸軒이 편액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자 寶釵는 여전히 빈정대는 투로 세상에 얻기 어려운 것은 부귀와 한가함인데 그 둘을 모두 갖추었으니 마땅히 富貴閑人으로 해야 한다고 우긴다. 이에 보옥은 어느 것이라고 정하지 않고 웃으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 《정각본》에는 대옥의 말이 한마디 더 첨가되어 있다. '아무렇게나 부르면 어떻게 쓰라구 그래요? 怡紅院에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怡紅公子라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니 다들 좋다고 하여 결국 怡紅公子가 된 셈이었다.⁴⁹⁾ 그리하여 보옥의 별호와 별명은 이들 사람이 지어준 대로 絳洞花主, 怡紅公子 그리고 無事忙, 富貴閑人 등 여러 가지를 갖게 되었다. 보차가 지어준 怡紅公子는 이름과 자신의 것인 형무군과 어울리게 보이고, 대옥이 농으로 부른 富貴閑人은 또한 그녀 자신의 것인 소장비자와 어느정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49) 이 대목은 《庚辰本》을 비롯한 脂評本에 없으므로 홍무몽연구소 교주본에도 빠져있다. 하지만 제38회의 菊花詩에 이 별호로 서명을 하였으니 만들어진 내력이 누락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迎春과 惜春은 각각 紫菱洲와 藕香榭에 살고 있어서 역시 그 이름을 따와서 菱洲와 藕榭로 불렀다. 이들의 雅號가 정해진 이후 제38회에서 史湘雲의 아호도 거론되는데 寶釵에 의해 史氏네집에 일찍이 연못 가운데 있었던 정자각인 枕霞閣을 따오고 그녀가 옛 주인이었으므로 고로 枕霞舊友라고 지어 주었다. 이처럼 홍루 인물의 별호는 모임에서 서로의 특징을 거론하며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⁰⁾

이밖에 시사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 인물의 별명으로는 우선 王熙鳳을 들 수 있다. 賈母는 임대옥과의 첫 대면에서 왕희봉을 소개하면서 강남의 유명한 鳳辣子(매운 고추)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賈母 한 사람 뿐이라고 할 수 있다.

賈寶玉을 제외한 남성들의 별명으로 우선 薛蟠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초자변을 쓰는 돌림으로 사촌인 薛蝌가 있다. 그의 자는 文龍(혹은 文起)⁵¹⁾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점잖은 자와는 달리 그의 별명은 呆霸王(멍청한 패왕)이다. 항룡을 빼앗아 올 때는 馮淵을 무식하리만치 때려주도록 하여 결국 죽게 만들었고 자신의 생일잔치에 보옥 등을 청했을 때는 唐寅을 庚黃으로 읽는 멍청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제47회에서 柳湘蓮을 회롱하려다 되레 매를 맞는 대목에선 '呆霸王'의 별명을 회문에 직접 쓰기도 하였다.

6. 避諱와 改名の 과정

避諱란 중국의 고대부터 황제나 성인, 조상 등의 특정인물에 대한 존경의 뜻으

50) 《紅樓夢》의 이 대목은 후에 《九雲記》에 영향을 준다. 중국문인으로 추정되는 작가(無名子)에 의해 쓰여진 《구운기》는 원래 《九雲夢》의 줄거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개작된 것인데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홍루몽》과 《경화연》 등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거처를 보면, 蘭陽公主가 玉香院, 英陽公主가 杜蕪院, 賈春雲이 夢友館, 桂蟾月이 稻香齋, 秦彩鳳이 紫菱洲, 狄鶯鴻이 碧藕軒, 沈襲烟이 沁芳亭, 白凌波가 蓼花澌, 庚夫人이 群芳院에 머무르고 주인 공 楊少遊는 大觀樓에서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紅樓夢》의 大觀園의 건물이름에서 그대로 혹은 약간씩 바뀌어서 만든 것이다. 拙稿〈九雲記의作者及其與紅樓夢的關係〉참조, 《紅樓夢學刊》1993年第2輯.

51) 《경진본》을 비롯한 脂評本에서는 文起라고 했으나 甲戌本은 文龍이라고 썼다. 신교주본에서는 문룡을 따랐다. 이름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면 蟠자와 龍자가 어울린다고 하겠다.

로 그의 이름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회피하였던 사회적 관습을 말한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러한 관습이 이뤄지게 되면서 중국인들은 상당히 불편한 언어문자 생활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수많은 동의어가 발생하게 되어 중국 고전의 이해와 해석에 막대한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이러한 황제에 대한 충성과 가문과 조상에 대한 효심을 드러내는 유가적 전통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古典文獻의 校勘에서 이러한 관습을 역으로 이용하여 저술의 시대를 판명하고 진위를 가리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홍루몽》의 창작시기인 청나라 중기에도 피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작품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홍루몽》의 등장인물이 시행하는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²⁾

구체적으로 작중 인물의 避諱습관을 드러내는 경우는 林黛玉에게서 처음 나타난다. 그녀의 가정교사를 지낸 賈雨村에 의해 피휘의 방식을 보여주는데 모친인 賈敏의 이름자를 직접 부르거나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⁵³⁾ 이는 가문의 직계존속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 않는 家諱에 속한다.⁵⁴⁾

賈府에서는 賈寶玉의 이름에 대해서 노소를 막론하고 매우 자유스럽게 부르도록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시녀들이 그를 부를 때 그냥 寶玉이라고 해도 좋다고 가모는 허락하였다. 林黛玉이 上京하여 처음 보옥과 상면하기 직전 문밖에서 하녀들이 소리친 말은 그대로 ‘寶玉來了’(제3회)였다. 물론 하인으로서 寶二爺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때때로 자유로운 분위기나 위급할 때는 그냥 寶玉

52) 《홍루몽》의 避諱문제는 사실 작가인 曹雪芹 자신의 태도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당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던 조정의 文字獄에서 피해가기 위하여 이 작품에서 노골적으로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세상은 淸나라의 康熙, 雍正 혹은 더 나아가 乾隆 초기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작자는 굳이 그 흔적을 드러내지 않고자 노력을 했다. 사연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남방 지역은 출현하고 있지만 굳이 北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京城, 長安 등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53) 그 방식은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거나 글자를 온전하게 쓰지 않는 것이다. 敏(min)자의 경우 密(mi)자로 읽거나 마지막 획을 덜 쓴다. 조설근 가문과 가까웠던 怡親王府에서 만든 《己卯本》에는 二代에서 걸친 怡親王의 이름자인 祥과 曉자에 피휘를 가하고 있다.

54) 避諱의 종류에는 國諱, 家諱, 聖諱, 官諱, 惡人諱 등이 있고 그 방법으로는 缺筆, 改字, 空字, 代字, 改音 등이 있다.

이라고 부르는 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여전히 그와 林黛玉의 이름에 동시에 들어있는 玉자에 대해서는 크게 중시하여 怡紅院의 하녀로 있던 紅玉은 그 이름을 小紅으로 바꿔야 했다. 소홍은 삼등 하녀로서 이홍원 안에서 극력 보옥의 눈에 띄이려고 노력했지만 보옥의 방에 있는 麝月과 같은 일등 하녀에게 제지당하여(제24회) 방향을 바꿔 왕희봉에게 접근하고 능력(주로 언어)을 인정받아 시녀로 발탁되어 갔다⁵⁵⁾.

이번에는 개명의 경우를 살펴보자. 《홍루몽》에서 등장인물의 개명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작중 인물에 의해 추진되며 그 과정도 상세히 보여주고 있어 흥미를 끈다. 실생활에서도 개명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모두 가지각색이다.

작품의 권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改名의 예는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가보옥의 일등시녀인 襲人和 임대옥의 일등시녀인 紫鵲이다. 두 사람은 모두 가모의 시녀였으며 각각 珍珠와 鸚鵡라고 불렸다. 이 두 사람은 작품의 주인공 가보옥과 임대옥을 끝까지 보필하는 가장 가까운 몸종인데 습인의 경우는 그 개명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紫鵲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안배 또한 《홍루몽》작자가 능숙하게 활용하는 對比法의 하나다. 보옥과 대옥이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의 반응도 그러한 대비를 드러낸다. 대옥은 속으로 ‘참으로 이상하기도 하지. 어디선가 만나 본 것처럼 어찌먼 이다지도 낮이 익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보옥이 쪽에서는 “이 누이동생은 전에 만나 본 적이 있어요.”하고 만인 앞에서 생각을 바로 드러내고 만다.

습인의 개명과정은 처음(제3회) 작자에 의해 해설의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진다.⁵⁶⁾ 그 때 보옥의 나이는 겨우 열세 살쯤이었다. 지금 여기서 가보옥의 실질적인 능력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 그가 것처럼 중시하는 인물이란 것을 작자가

55) 脂硯齋評에 의하면 紅玉은 초기 원고에 쓰인 후40회의 賈寶玉의 獄神廟 대목에서 큰 역할을 하고 또 보옥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니 紅玉이란 이름도 어찌면 보옥과의 관계를 위한 작자의 심려 깊은 안배라고 할 수 있겠다. 脂評 ‘紅玉後有賈玉大得力處。此於千里外伏線也’.(제27회)

56) 보옥은 그녀의 성이 화씨(花氏)라는 걸 알고 전에 옛사람의 시구 중에 ‘화기습인(花氣襲人)’이란 구절을 본 적이 있는 까닭에 가모에게 말씀드리고 이름을 습인으로 바꾸었다.(賈玉因知他本姓花，又曾見舊人詩句上有「花氣襲人」之句，遂回明賈母，更名襲人.)

밝히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덧씩워 온다'는 꽃향기를 염두에 두고 그녀의 성씨를 화씨로 안배한 것 등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 특별한 이름에 대해서는 등장인물들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부친인 賈政이 먼저 힐난하고 나선다.(제23회) 처음에는 할머니를 핑계대다가 결국 陸遊의 <村居書喜>에 나오는 '花氣襲人知晝暖'⁵⁷⁾의 구절을 증거로 내세우며 변명한다. 그만큼 습인의 개명은 집안의 중요한 사건이었고 보옥으로서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애착이 가는 명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그녀의 성씨인 花氏에 의해 만들어진 양 되어진다. 그 성씨에 의하여 그녀의 오빠는 자연스럽게 花自芳으로 명명된다. 전혀 남자이름 같지는 않지만 부차인물로서의 자연스런 명명에 속한다.

紫鵲의 경우는 특별한 개명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 의한 개명인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그 이름이 대옥이 데려온 雪雁과 마찬가지로 새의 이름으로 짝이 되고 있다는 정도인데, 특히 붉은 피를 토하며 서글피 운다고 하는 두견새를 나타내므로 사랑의 성취에 실패하고 피눈물 흘리며 절명하는 林黛玉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⁵⁸⁾

怡紅院의 시녀로서 이름이 고쳐진 또 하나의 예는 四兒다. 그녀는 원래 茁香으로 불렸는데 습인에 의해 蕙香으로 고쳐졌다. 왜 고쳐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이 많은 일등하녀는 삼등 하녀의 이름을 고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21회에서 보옥이 습인과 뭘 일인가로 심사가 잔뜩 뒤틀려 있는데 마침 나타난 혜향을 향해 이름을 묻는다.

보옥이 물었다. "네 이름이 뭘이냐?" 그 하녀가 대답했다. "蕙香이라고 해요." 보옥이 다시 물었다. "누가 지은 이름인데?" "전 원래 茁香이라고 불렀는데요. 화습인 언니가 혜향이라고 고쳐 불러줬어요." 보옥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차라리 晦氣(재수없다)라고 부르지 그래. 무슨 혜향이라고 부른담." 그러곤 다시 통명스럽게 물었다. "너흰 자매가 몇인데?" 혜향이 답했다. "넷이에요." "그럼 넌 몇째냐?" "네

57) 陸遊의 詩句는 원래 <花氣襲人知晝暖>이다. 驟자를 晝자로 바꿔 쓴 것이 고의인지 작자의 일시 실수인지는 알 수 없다.

58) 한편 임대옥과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薛寶釵의 시녀를 보면 金鶯兒인데 금속성을 상징하는 金氏를 채용하고 있어 주인과 시녀의 관계를 결정하고 있다.

번째예요.” 보옥이 말했다. “내일부터 四兒라고 고쳐, 蕙香이니 蘭氣니 하지 말고. 누가 이런 향초의 이름 값이나 하겠나. 공연히 좋은 이름 더럽히지나 말라고 그 래!”⁵⁹⁾

이 때 보옥은 습인에 대해 잔뜩 골이 난 상태였으므로 혜향이란 이름을 습인이 고쳐주었다는 말을 듣고 엉뚱하게 그 시녀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蕙香에서 晦氣를 생각한 것은 諧音法에 해당되며 또 蘭氣와 비유한 것은 對比法의 기교다. 그녀의 이름은 이처럼 사소한 이유로도 개명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야말로 장난삼아 이름을 바꾸는 놀이를 한 경우도 있다. 芳官이 그 좋은 예다. 방관은 소주에서 사들여온 연극배우 12명중의 한사람이다. 대관원에서 그동안 창극을 연습하고 잔치날이면 공연을 하곤 했는데 궁중의 老太妃가 薨去하는 바람에 家班(귀족 집안의 사설 연극반)을 해체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대관원 각 자매들에게 시녀로 배치되었는데 방관은 이홍원에 들어왔다. 그녀는 습인과 같은 花氏다. 이름을 꽃다울 芳자로 지은 것과 연관된다. 제63회 가보옥의 생일축하로 대관원의 밤 잔치를 열었을 때 방관은 통음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 그 모습이 보옥과 닮아 사람들은 쌍둥이 형제 같다고 놀린다. 그 날밤 대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로 보옥의 침상이었다. 이튿날 보옥은 그녀에게 남장을 하라고 하고 耶律雄奴⁶⁰⁾라고 하는 북방민족의 이름으로 고친다. 사람들은 이를 잘못 듣고 野驢子(들노새)라고 불렀다. 그래서 다시 溫都裏納라고 고쳤다. 이는 프랑스말로 금성 유리보석의 뜻이라고 했다⁶¹⁾. 방관

59) 이 대목에서 《庚辰本》과 《程甲本》의 문자가 일부 다르게 기록되었는데, 前者는 “你是第幾個的?”와 “我是第四個的”인데, 후자는 “你第幾個?”와 “第四”로 되어있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고 있다. 俞平伯교본에서는 이를 고쳐서 “你第幾?”와 “第四”라고 교정했다. 최근 曹芸生의 연구에서는 第四個를 四子로 보고, 이를 賈寶玉을 암시한다고 하며 가보옥은 곧 乾隆황제를 은연 중에 가리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曹芸生 <誰是第四個?—兼談脂本之真, 程本之偽, 俞校本點金成鐵>, 《紅樓》2003년제1기.

60) 보옥의 말을 통해 雄奴는 匈奴와 발음이 통하며 바로 犬戎의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다.

61) 서양의 프랑스에 금성 유리의 보석이 있는데 그 나라에선 금성 유리를 ‘온두리나’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너를 그것에 비유하여 ‘온두리나’라고 고쳐 부르는게 어떠냐?(海西福朗思牙, 聞有金星玻璃寶石, 他本國番語以金星玻璃名爲溫都裏納, 如今將你比作他, 就改名喚叫溫都裏納可好?) ‘온두리나’는 프랑스어 ‘aventurine’의 음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나라 雍正, 乾隆연간에 이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다. 砂金石으로 번역되는데 사금석, 石英으로 유리화병이나 유리그릇 등을 만든다. 원문에서는 유리(玻璃)라고 풀고 있다.

의 개명은 실제로 아주 고친 것이 아니라 다같이 늘면서 잠시 재미있게 부르기 위해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 그녀의 소탈하고 거리낌없는 성품과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을 흉노족의 이름이나 서양식 이름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것이다. 정중한 여자에게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방관의 경우 그런 보옥의 취미를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름은 후에(제77회) 왕부인으로부터 지목받아 축출당하는 하나의 죄목이 되고 만다. 그녀는 한사코 나가지 않고 水月庵으로 출가한다.

이밖에 다른 인물의 개명 중에서 주목할 인물은 香菱이다. 그녀는 바로 甄士隱의 딸인 甄英蓮이지만 어려서 유괴되고 양육되어 薛蟠에게 팔리면서 香菱이라고 이름지어진다. 명명자는 설반의 누이인 薛寶釵다. 망난이 같은 설반의 侍妾으로 있지만 寶釵의 보살핌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나중에는 黛玉에게서 시를 배우기까지 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낸다. 하지만 설반의 正妻인 夏金桂가 들어오면서 향릉은 괴롭힘을 당하고 급기야 그 이름마저 秋菱으로 개명되고 만다. 향릉은 金陵十二釵 副冊의 인물이다. 선비집안의 딸로 태어났으니 하나와는 격이 다르지만 결국 하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에 작자는 동정을 보내고 있다. 애초에 蘇州 仁清巷에서 甄士隱이 안고 있을 때 홀연 나타난 중은 그녀를 '목숨만 있고 운수는 없는(有命無運)' 인물이니 일찌감치 출가시키라고 권했다. 그녀의 운명을 그린 책에는 '마름과 연근이 한줄기로 향내나지만(根並荷花一莖香)'이라고 하여 그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 하금계는 그녀의 이름이 보차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가을 秋자를 넣어 바꾸도록 강요한다. 이름의 변천은 그녀 운명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명명유래가 있는 인물은 王熙鳳의 딸인 巧姐다. 유노파가 처음 賈府에 들어와 왕희봉을 만날 때 이 아이는 유모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름도 大姐라고 했다. 이 대갓집의 실질적인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왕희봉도 命中에 자식복이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들이 없이 이 딸만을 기르고 있는데 제42회에서 유노파의 방문을 받고 그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다. 나이가 많이 든 시골 노인이 지으면 길하고 장수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노파는 그녀의 생일이 7월7일 칠석날이었으므로 아예 巧姐라고 하자고 하였다. 칠석날에는 견우

과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직녀는 베를 짜는 천상의 선녀다. 이날 민간에서는 자신도 그녀와 같이 베를 잘 짜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데 이를 乞巧(교묘한 솜씨를 구걸함)라고 했다. 원래 이름에 직접 교자를 쓰는 것은 금기시 되지만 유노파는 난관에 부딪쳐 길상을 만나고(遇難成祥) 흉함을 만나야 길하게 된다(逢凶化吉)는 뜻을 살려 아예 巧姐라고 한 것이었다. 여기서 개명이라고 하지 않을 것을 보면 앞서 불리던 大姐라는 이름은 그저 兒名이었던 모양이고 제대로 된 이름으로 巧姐를 처음 지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녀의 운명을 그린 判詞와 그림을 보면 시골집에서 베를 짜고 있는 모습이며, 판아의 손에 있던 佛手와 자신의 柚子를 바꾼 것(제41회) 등으로 보아⁶²⁾ 원작에서는 유노파의 손자 板兒와 결혼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현행 120회 본에선 유노파의 증매로 시골에 살지만 부자에게 시집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便宜에 따른 이름짓기

작중 인물 중에는 작자의 창작과정에서 편의대로 만들어진 이름들이 있다. 이를 감정적으로 편의에 따른 이름짓기라고 부른다. 등장인물의 단순한 특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름을 지은 경우를 찾아보면 우씨네 세 자매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름이 없이 다만 尤氏와 尤二姐 및 尤三姐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모친은 尤老娘이다. 우씨라는 성을 제외하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듯한 명명일 뿐이다. 우선 尤氏로 말하면 지금 가부의 장손인 賈珍의 처로서 寧國부의 안주인이다. 하지만 가용의 親母는 아니고 계모인 것으로 보인다. 시집 온 후에 여성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선례에 의하면 사태군, 왕부인, 형부인 등이 모두 이름이 없지만 王熙鳳과 李紈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동급인 尤氏는 그저 성씨만 불리고 있

62) 이 대목의 脂評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마침내 천리밖의 복선을 깔아둔 셈이다'라 했고, 또 '유자란 향기로운 둥근 과일(香圓)인데 곧 인연(緣)과 상통하고, 佛手는 迷津을 가리키는 손을 의미한다. 아이들 장난 같지만 은연중 전후의 맥락을 이어주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다. 심지어 며느리 진씨의 경우도 독자들은 그녀의 이름이 진가경 입을 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金陵十二钗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성씨는 본래부터 뛰어나게 아름답고 요염하다는 尤物이란 말과 통한다. 道觀에서 煉丹만 하던 賈敬이 죽자 우씨가 장례를 치루는데 회목에는 그녀를 獨艷으로⁶³⁾ 지칭하고 있다. 그녀의 요염한 아름다움을 드러낸 대목이다. 그녀는 개성이 뚜렷하거나 재능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秦可卿이 죽었을 때는 복통을 핑계로 장례를 주관하지 않는다. 그녀의 친정 계모가 尤老娘이다. 이 무렵 딸네 집에 온다. 그녀가 후처로 들어올 때 데려온 두 딸이 尤二姐와 尤三姐이니 따지고 보면 尤氏와는 부모가 전혀 다른 남남이다. 그러므로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형부와 조카인 賈珍과 賈蓉이 모두 그녀들과 음란한 시도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외부사람인 이 두 여자는 가부에서 적지 않은 파란을 일으켜 세상을 놀라게 한다. 賈璉의 숨겨둔 첩이 된 尤二姐는 왕희봉에 발각된 후 대관원으로 유인되어 옮겨와서 핍박으로 금을 먹고 자살하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그리던 柳湘蓮과의 약혼으로 들떠 있던 尤三姐는 그의 파혼선언에 충격을 받고 원앙검으로 자결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홍루몽》초기의 창작과정에서 《풍월보감》의 원시자료가 되었을 것 이란 연구도 있다. 제대로 된 이름은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작자는 이들을 독자들의 인상에 깊게 남는 '紅樓二尤'로 남게 만들었다.

작중인물 중에는 그야말로 단순하게 등장하는 소인물이 수도 없이 많다. 이들에 대해 작자가 일일이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들의 직업이나 성격이나 작중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쉽게 연상되는 말을 그대로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몇 가지 예에서 살펴본다.

직업이나 역할에 의한 명명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대관원에 조성한 화원의 꽃나무를 관리하는 인물로 老葉媽, 老田媽, 老祝媽 등이 나오는데 이들의 성씨는 각각 葉, 田, 祝을 쓰고 있는데, 祝씨는 발음상 대나무 竹자를 의미한다. 꽃나무와 대나무와 채마밭 등을 가꾸는 일을 맡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63) 제63회 四金丹獨艷理親喪.

寶玉과 秦鐘이 가숙을 나갈 때(제9회) 학동 중에 본명이 아니고 예쁘장하게 생긴 두 아이에게 적당한 별명을 붙여 부르는데 이름을 하나는 香憐, 하나는 玉愛라고 했다. 이 대목의 묘사는 남자애들의 동성애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들은 보옥과 함께 새로 들어온 秦鐘에게 접근한다. 이를 눈꼴사납게 여긴 金榮에 의해 사단이 생기고 일대 난동으로 번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 아이의 이름은 실제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적당한 별명으로 지은 것이다. 서로 좋아하겠다고 쟁탈전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여자 같은 별명을 지은 것이다.

賈寶玉은 天齊廟에 갔다가 왕도사와 얘기를 나눈다(제80회). 그는 만병통치라고 선전하면서 온갖 약을 다 만들어 파는데 賈府에 들락거리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王一貼이란 별명을 만들어 불렀다. 특히 그가 만든 고약이 하도 용하여 한번만 발라도 말끔히 낫는다는 뜻으로 쓰인 우스개 별명이다. 寶玉은 향룡이 하급계의 질투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혹시 여인의 질투를 고치는 약이 없는가 물었더니 '療妬湯'이란 게 있다고 엉터리로 말해준다.

엉터리 의사의 대표는 尤二姐를 임신을 진찰한 胡君榮이다. 왕희봉의 조종에 의한 秋桐의 박해에 임신으로 누워있을 때 불려온 의원의 성이 胡氏였다. 그는 제대로 병을 고칠 생각은 않고 환자얼굴을 직접 당면하고 처방하겠다고 하더니 그 아리따운 모습에 넋이 나간다. 하지만 그가 처방한 약은 오히려 배속의 태아를 때고 말았다. 賈璉이大怒하여 그를 고소하자 곧 도망치고 말았다. 성씨가 胡氏인 의원은 엉터리의사란 중국어의 蒙古大夫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근兒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寧國府의 시녀가 있다. 茗烟과 밀회를 하다가 보옥에게 들켰는데(제19회) 이름은 그녀의 어머니가 근字 모양의 무늬가 끊이지 않고 그려진 비단을 꿈에 보고 낳았다고 해서 지은 것이라고 했다.

성씨만 있고 항렬의 숫자만 쓴 인물도 대거 등장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소인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제86회에는 張大, 張二, 張三이란 세 명의 이름이 나온다. 그저 장씨라는 것과 그 세 명의 관계가 순서에 의한 명명이란 것만 알게 된다. 사연은 이러하다. 원래 전에도 하인을 시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는 설반은 출장을 나갔다가 술집에서 건방지다는 이유로 술 나르는 급사를 술 사발로 내리쳐 죽게 만든다. 이때 죽은 사람은 張三이다. 그의 모친이 관가에

고발을 하여 하소연을 하였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죽고 지금 셋째인 장삼만 남았는데 죽었으니 어서 살려내라는 것이다. 장삼의 아버지는 張大인데 오래 전에 죽고 지금 그의 숙부인 張二가 원고측 대표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장대와 장이는 형제간이고 장삼은 장대의 아들, 장이의 조카가 되는 셈이어서 항렬로 보면 맞지 않는 이름이지만 여기서선 설반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엑스트라 인물하기에 그렇게 적당히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특정하지 않은 인물로 흔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사람을 지칭하면서 張三李四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술집 주인의 이름은 李二다. 장삼보다야 나이가 많을 테니 李四라고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단순하지만 재미있고 적절한 명명이다.

8. 紅樓夢 명명의 의의

《홍루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주요인물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름의 명명에는 작자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등장 횟수가 적거나 잠시 나타나는 엑스트라형의 인물에서는 작자 자신도 가볍게 처리하여 그들의 직업을 나타내거나, 단순 성격을 드러내는 이름을 짓지만, 작품 전체를 관통하거나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명명을 하고 있다.

작자는 중국 전통적인 명명법의 다양한 형식을 원용하여 소설인물을 창조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생동감 있는 인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인물 자신의 운명과 주변 인물과의 상관관계와 더 나아가 《홍루몽》 자체의 심오한 주제와도 연관되는 이름을 짓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曹雪芹은 천재적인 작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수백 명에 이르는 인물의 명명에서 추호의 흐트러짐도 없이 능란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諧音法의 명명은 한자가 지니고 있는 표의적인 특징에 음성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동일한 발음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도록 하는 특수한 방식의 명명법인데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는 활용되어 왔다. 《홍루몽》에서는 특히 眞假의 문제를 성씨로 만들어오면서 훨씬 복잡한 의미와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甄士隱과 賈雨村은 바로 眞假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진사은은 일찍부터 세상의 허무를 깨닫고 출가하여 마지막 회에 이르러 다시 등장한다. 놀라운 인내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가우촌은 그 이름값을 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거짓과 허위의 세계를 마음껏 휘돌아 다닌다.

진가의 문제는 주인공 가보옥의 기이한 언행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깊은 사고를 요하게 만든다. 또한 주인공과 더불어 이 작품의 애정혼인의 중심라인을 이끌고 있는 임대옥과 설보차의 이름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규명하면 이들 세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전생과 이승의 인연을 좀더 명쾌하게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보옥은 옥을 물고 태어났으므로 그렇게 명명되었지만, 전생에서는 돌이었다. 돌과 나무의 만남으로 이미 지울 수 없는 목석의 인연을 맺은 보옥과 대옥은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인연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었다. 누이도 옥을 가졌느냐고 물었을 때 대옥은 그런 귀한 물건이 어찌 누구나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보옥은 마땅히 그녀에게도 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름에만 옥자 들어있을 뿐 실제로 옥은 없었다. 할머니는 그녀의 옥을 죽은 엄마의 관속에 넣어보냈다고 했다. 전생의 사연은 전혀 보이지 않는 설보차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으로부터 받은 금쇄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거기에 씌인 글자는 통령보옥의 글자와 그대로 대구가 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금옥의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름에 얽힌 사연은 주인공 세 사람 사이 애증관계의 전후맥락을 이해하게 한다.

가씨집 네 자매의 이름에서는 《홍루몽》이 흘러가는 청춘을 아쉬워하며 가버린 젊음에 대한 한없는 회한을 그리고자 하는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시녀에게서 문득 琴棋書畫의 配列法에 의한 작자의 포석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명명법으로 인하여 소설 속 등장인물은 활기찬 개성을 추구하며 독자들 앞에서 나타난다. 인간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설 속에서는 雅號를 짓고

別名을 부여하며 避諱를 위하거나 재미를 위해 때로는 화필이를 하기 위하여 남의 이름을 바꾸주는 다양한 改名의 과정들도 그려지고 있다. 《홍루몽》 인물의 명명예술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작가의 뛰어난 匠人정신이다. 또한 작중 인물사이의 창조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작중 인물사이의 상관 관계까지도 진정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인물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수많은 사물의 이름들도 모두 작자가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예술이다. 紅樓 文化의 藝術 世界를 들어가는 열쇠로서 命名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中國藝術研究院紅樓夢研究所校注 《紅樓夢》(上下),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俞平伯校訂 《紅樓夢八十回校本, 附錄後四十回》(전4권), 香港: 中華書局, 1974
 曹雪芹著, 안의운·김광렬 옮김, 《홍루몽》(전7권), 서울: 청년사, 1990
 許龍九解說, 鄭在書編, 《홍루몽 해설 및 연구자료집》, 서울: 예하, 1991
 馮其庸·李希凡主編 《紅樓夢大辭典》,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0
 上海市紅樓夢學會 等編 《紅樓夢鑑賞辭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周定一主編 《紅樓夢言語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1995
 陳慶浩 《新篇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 臺北: 聯經出版公司, 1986
 何曉明 《姓名與中國文化》, 北京: 人民出版社, 2001
 蕭遙天 《中國人名的研究》, 臺北: 臺菁出版社, 1969
 傅憎享 <金瓶梅小說人名小議>, 《金瓶梅研究》제7집, 2002. 9 北京
 何曉明 《姓名與中國文化》, 人民出版社, 2001
 蕭遙天 《中國人名研究》 臺北: 臺菁出版社, 1969
 施寶義等 《紅樓夢人物辭典》,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89
 崔浴澈 《清代紅學研究》, 臺灣大學 博士論文, 1990
 趙 岡 <紅樓夢裡的人名>, 《花香銅臭讀紅樓》, 臺北: 時報文化出版公司, 1978
 胡文彬 <紅樓夢與中國姓名文化>, 《紅樓夢學刊》 1997年 第3輯
 金啓琮 <紅樓夢人名研究>, 《紅樓夢學刊》 1980年 第1輯

陳 詔 <紅樓夢人名考辨>, 《紅樓夢學刊》 1980年 第4輯

重 連 <賈府四個小姐的名字>, 《紅樓夢研究集刊》 第3輯

張 蘭 <夏金桂的命名>, 《紅樓夢研究集刊》 第3輯

吳世昌 <紅樓夢原稿後半部若干情節的推測>, 《紅樓夢研究集刊》 第3輯

崔溶澈 <九雲記的作者及其與紅樓夢的關係>, 《紅樓夢學刊》 1993年 第2輯

<中文提要>

《紅樓夢》人物的命名藝術極為豐富，一向被紅學家重視。書中的命名方式，有如諧音法、配列法、順手法等多種多樣。至於諧音法，早在第一回的開場白中，作者曹雪芹自我宣布，云書中部分人名含有深刻的象徵意義，如甄士隱則‘將真事隱去’的意味，賈雨村則隱藏着‘用假語村言敷衍出的故事’的意味。甄賈若有真假之意，甄寶玉與賈寶玉則自然如此，引起讀者深思。這種諧音法，脂硯齋等早期批評家已經指出不少，根據人物性格與活動，有些極為中肯，但一些後期紅學家，更加發揮，達到牽強附會的程度。至於配列法，明顯的例子應屬於賈府四小姐與其四丫鬢，四小姐的元迎探惜則意味着整個春天的變化過程，春天的流逝則象徵青春的消失與富貴榮華的消失，《紅樓夢》的主題之一就是懷念青春與人生的消失，更為明顯的配列法命名，見於四小姐的丫鬢名字裡，則含有文人常備的琴棋書畫事件物名，加上一字動詞，變位極為有趣的的名字，如抱琴、司棋、待書以及入畫。她們不僅表示小姐們的陪伴，更表示各主人小姐的喜愛之處。順手法命名方法則，在各種場合出現的小人物身上，隨便起的名字，順手而合理、有趣，如尤氏的兩個妹妹，就云尤二姐與尤三姐，沒有正式名字。

《紅樓夢》的戀愛婚姻主線上的主人公就是賈寶玉、薛寶釵以及林黛玉三人。此三人為三位一體，寶玉之名則寶釵與黛玉的合名，寶釵與黛玉名中占有來自寶玉的寶字與玉字。在寶玉的立場來看，寶釵與黛玉，均為重要。寶玉有玉(通靈玉)，寶釵有金(金鎖)，因此今生有金玉良緣之說，黛玉則什麼都沒有，只好退讓，只能含羞哭泣。但寶玉的前身就是石頭(神瑛侍者)，黛玉的前身就是草木(絳珠仙草)，因此前生有木石之緣，那就解不開的宿緣，而今生却無用。寶玉和寶釵，各被稱呼寶哥哥、寶兄弟以及寶姐姐、寶姑娘，但黛玉却被稱呼林妹妹、林姑娘，各含有因緣的不同層次。

《紅樓夢》中成立詩社時，各人互稱雅號與別名，如絳洞花主、瀟湘妃子、蘅蕪君等，如同文人社會互稱雅號的習慣。還有避諱習慣(如林黛玉對其母賈敏的避諱)和改名的習慣，對芳官的改名，純屬於一種雅趣。小說人物的命名則作者一片苦心的成果，

《紅樓夢》人物命名更是如此，人物的巧妙的安排和富有象徵意味的命名，更加豐富作品的藝術境界。

중심어: 紅樓夢, 曹雪芹, 脂硯齋, 人物命名, 諧音法, 配列法